

2019년도 1학기  
통계조사실습 조사보고서

## 20대와 60대 취업 현황 비교 조사

응용통계학과 201552001 유승우  
응용통계학과 201552043 전태양

# 제 출 문

본 실습보고서는 2020년 1학기 통계조사실습 수업에서 통계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인 조사계획수립, 표본 설계, 설문지 작성, 조사자료 분석, 통계패키지 실습 및 보고서 작성 등의 내용을 공부하고,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9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실습한 결과물로 작성한 통계조사실습 분석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6월 28일

응용통계학과  
분석자 : 201552001 유승우  
201552043 전태양

# - 목 차 -

I. 경제활동 인구조사 조사개요

II. 조사설계

- 표본 설계
- 측정 설계
- 조사 방법
- 가중치 설계 및 무응답 처리

III. 응답자 특성 및 현황

IV. 문항 분석

- 분석 목적 및 배경
- 분석 대상
- 분석 문항
- 분석 결과

V. 결론

## ( 표 목차 )

[표 1.1] 연동표본 개편에 따른 표본추출틀 구축 연혁 -----	3
[표 2.1] 표본과 목표 모집단 -----	6
[표 2.2] 조사 내용 -----	7
[표 3.1] 응답자 특성 및 현황 -----	10
[표 4.1] 20대와 60대의 취업자 분포 -----	13
[표 4.2] 20대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률 -----	14
[표 4.3] 60대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률 -----	15
[표 4.4] 주당 총 평균 근로시간 -----	18
[표 4.5] 평소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 -----	21
[표 4.6] 추가 근로 희망 여부 -----	23
[표 4.7] 추가 취업 가능성 -----	25
[표 4.8] 지난 4주 추가 취업 구직 여부 -----	27
[표 4.9] 종사자 규모 -----	30
[표 4.10] 직업 -----	33
[표 4.11] 종사상 지위 -----	36
[표 4.12] 고용계약 여부 -----	38
[표 4.13] 고용계약 기간 -----	41
[표 4.14] 20대 60대별 평소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유 -----	43
[표 4.15] 20대 60대별 추가 근로 희망 여부 -----	47
[표 4.16] 20대 60대별 지난 4주 내 추가 구직 여부 -----	51
[표 4.17] 20대 60대별 종사자 규모 -----	53
[표 4.18] 20대 60대별 직업 -----	56
[표 4.19] 20대 60대별 종사상 지위 -----	59
[표 4.20] 20대 60대별 고용계약 여부 -----	62
[표 4.21] 20대 60대별 고용계약 기간 -----	64
[표 5.1] 결과 요약표 -----	67

## I . 2019 경제활동 인구조사 조사개요

경제활동 인구조사는 국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 그 수행을 위하여 1962년 8월 이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통계작성에 관한 ILO 권고안을 준수하기 위하여 ILO 결의안의 변경사항 등을 작성기준과 통계표 문항 등에 반영하여 정부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국가승인통계조사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서 주로 이용하며 정부 고용정책 점검 및 평가자료,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도출근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대상 선정의 근거, 시간선택제 일자리 추진 점검회의의 현황 및 동향분석 자료, 여성·청년·장년 등 근로계층별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일, 구직, 무급 종사자에 관한 내용으로, 표본은 매 5년마다 재설계하고, 매월 표본가구의 1/36씩 연동 교체하며, 주요 용어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메뉴얼의 국제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의했다.

조사기간은 15일이 포함된 다음주 1주간이며, 조사주기는 ‘월’이고, 조사 기준시점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 7일간이다. 또한, 조사에 대한 결과의 공표 주기는 ‘월’ 단위이며, 공표 시기는 조사기준 월 ‘익월’이고, 공표범위는 ‘시도’이다.

법적 근거로는 통계법 제17조 1항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4호, 1962. 6. 1)이며,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거, 응답의무가 있으며 응답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시계열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연동표본제를 도입하여 적용 중이다. 연동표본(rotation panel survey)이란 시점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의 부표본(sub-sample)을 표본에서 제외시키고 새로운 부표본으로 표본을 대체시키는 표본추출방법을 의미한다. 연동표본제로 인해 매월 약 900가구를 교체하고 있으며, 과대 및 과소 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발생 시 지방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조사구를 조정하고 있다.

[표 1.1] 연동표본 개편에 따른 표본추출틀 구축 연혁

	2차 연동	3차 연동	4차 연동	5차 연동	6차 연동
연동도입시기	2007.09. (인천, 경남 2007.05.)	2010.09. (인천, 경남 2010.05.)	2013.01.	2016.01.	2018.01
표본추출틀	2005년 인총 + 신축조사구(06 년)	2005년 인총 + 신축조사구(08 년)	2010년 인총 + 신축조사구(11 년)	2010년 인총 + 신축조사구(14 년)	2015년 인총조사구
표본규모	1,629개 조사구	1,629개 조사구	1,629개 조사구	1,647개 조사구(경기9, 제주9 조사구 추가)	1,737개 조사구(세종54, 강원18, 전북 18조사구 추가)

## · 조사연혁

최초작성년도 : 1963

- 1957. :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 1961. 7. :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실시
- 1962. 6. : 통계작성 승인
- 1962. 8. :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 변경 및 새로운 표본과 전문화된 조사원에 의하여 시험조사 실시
- 1963. 3.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분기마다 연기식 조사표(조사표 1매에 복수의 대상자 조사)로 면접조사 실시(15개 항목)
- 1969. : 1966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에서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여 표본개편
- 1972. : 표본개편
- 1977. : 표본개편
- 1980. 1. : 자료의 다목적 분석을 위해 조사항목을 25개로 확대 실시, 단기식(조사표 1매에 대상자 한명씩 조사) 조사표 사용
- 1982. : 표본개편
- 1982. 7. :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주기를 월별로 변경 및 연기식 조사표와 단기식 조사표 병행 사용
- 1983. 6. : ILO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표 전면 개편
- 1985. 1. :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
- 1987. 1. : 국민소득 향상과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함에 따라 조사대상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및 농가·비농가 계절조정 실업률 작성
- 1988. 7. : 표본가구를 확대(17,500→32,500가구) 교체(표본개편), 시·도별 자료 생산이 가능
- 1989. 10. :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 1990. 12. : 통계청 통계조사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시
- 1992. : 1990년 실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개편
- 1994. 6. : 199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에 따라 시계열 자료(1989.~1994. 5.) 보정
- 1998. 1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7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OECD 기준 실업률, 보조지표 작성 등을 위해 조사표 개편 및 월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
- 1999. 1. : 자료 입력시 에러방지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3개월간(1998. 10.~12.)의 병행조사기간을 거쳐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도입
- 1999. 7. :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에 따른 시계열 보정(1991. 1.~1999. 5.), 취업자, 실업자 등 계절조정자료 작성 확대, 구직기간 4주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 공표(1999. 6.~)
- 1999. 11. :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 부문을 보완한 조사표 개편
- 2001. 8.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연1회, 8월)
- 2002. 6. : 청년층 부가조사 실시(연1회)
- 2003. 1.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와 연령계층별 승수 적용에 따른 시계열 보정(1991. 1.~2002. 12.), DOS 입력 방법에서 Windows기반으로 입력프로그램으로 변경,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는 등 조사표개편
- 2004. 1. :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서 PDA방식으로 변경 및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표본전면 개편에 따른 신구 계열 괴리현상 완화를 위한 연동표본 시험실시
- 2004. 10. : 집계단위를 천단위에서 백단위로 변경, 2003년 1월 이후 자료를 백단위로 보정
- 2005. 1. : 조사표 수정(조사항목의 보다 나은 의미전달을 위해 질문어구 수정, 선택항목 중 육아와 가사의 분리와 심신장애 추가) 및 전국적으로 연동표본 도입
- 2005. 4. : 고령층 부가조사 실시(연1회)
- 2005. 7. : 공식실업률 작성기준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1999.6월 자

료부터 소급하여 제공)

- 2006. 1. : 직업 소분류 단위로 조사, 혼인상태 사별과 이혼으로 분리 등 조사표 수정
- 2007. 3. :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확대(연2회, 3월, 8월)
- 2007. 8.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실시(연1회)
- 2007. 9. : 표본 개편(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 32,580→32,000가구)
- 2008. 1. : 조사표 개편, 인터넷조사(CASI) 도입
- 2009. 1. : 외국인 조사대상에 포함
- 2009. 7. : 전화면접조사(CATI) 도입
- 2011. 3. : 항목 세분화, 세부문항 추가등
- 2013. 8. :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실시(격년)
- 2013.12. : 취업가능성, 대상기간 확장(지난주 +2주), 가족종사자, 평소 취업시간 등 조사표 수정
- 2014. 2. : 모바일 CAPI 도입
- 2014. 3. : 모바일 CASI 도입
- 2014. 11. : 고용보조지표 공표(2014년 5월 자료부터 제공)
- 2015. 1. : 조사표 개정  
(2014년 조사표 대비 변경 사항)
  - 지난 1주간 주된 활동상태 위치 변경 및 일부 응답항목 삭제(일하였음, 일시휴직, 구직활동, 발령대기, 결혼준비)
  - 일하였음과 무급가족종사자 문항 분리
  - 일시휴직 보기문항의 육아와 가족적이유 구분
  - 평소취업시간 신설
  - 실제취업시간과 평소취업시간의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분리
  - 1주 구직여부 및 원하는 고용형태 삭제
  - 4주 구직활동 문항에서 취업예정자(발령대기자) 문구 삽입
  -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신설
- 2015. 5. : 인구구조 변동 반영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하여 경기와 제주 조사구 확대(32,000 → 33,000가구)
- 2016. 8. :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심층적인 부가조사 개발
- 2018. 2.
  - 2000년 7월 이후 자료에 대한 시계열 보정  
(인구추계자료가 조사기반에서 등록기반으로 변경)
  - 시도별 자료에 세종시를 추가하여 17개 시도로 공표
  - 세종시 추가 및 유효표본 확보를 위한 강원과 전북 조사구 확대  
(1,737개 조사구, 약 35,000가구)
- 2019. 1. : 교육정도(학력 및 계열) 대학이상의 계열 세분화

## II. 조사 설계

### · 표본설계

2019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이다. 조사모집단은 2016년 행정자료 기반 등록자료에 기재된 대한민국의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이다. 표본조사가 어려운 군대병영, 병원, 교도소 등을 제외한 목표모집단에 대한 조사모집단이 포함률은 조사구 기준 99.9%이다.

표본추출은 2015년 인구총조사 기준 표본추출틀을 3개 동질적인 부차모집단으로 분할 후 각 부차모집단에 연간표본을 27개 설계 층별로 추출하는 층화 2단 집락 추출방법을 적용했다.

층화는 17개 시도로 먼저 층화한 후 특광역시는 각각 1개층, 세종 및 9개 도지역은 2개층(동부, 읍면부)으로 층화하였고, 조사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분류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추출하여 내재적 층화 효과를 얻었다.

2단 집락 중 1단은 (조사구)은 일반조사구를 대상으로 확률비례계통추출(가구수 크기 비례), 2단(가구)은 추출된 일반조사구 내 가구를 단순임의추출하였다. 또한, 매년 최신화된 등록조사구로 표본추출틀 구성 후 부차모집단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3그룹만 추출하였다.

최종 표본추출틀은 조사구 수 682,414개로 조사모집단 내 조사구 대비 포함률은 99.2%이며, 표본규모는 1,737개 조사구(조사구 당 평균 20가구)로 전국 약 35,000가구 60,048명이다.

[표 2.1] 표본과 목표 모집단

		표본		목표 모집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60,048	100.0%	44,459,808	100.0%
성별	남자	28,153	46.9%	21,858,746	49.2%
	여자	31,895	53.1%	22,601,062	50.8%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10,226	17.0%	5,272,986	11.9%
	중졸	8,075	13.4%	5,332,115	12.0%
	고졸	21,424	35.7%	16,681,804	37.5%
	초대졸	5,946	9.9%	4,912,626	11.0%
	대졸	12,457	20.7%	10,725,862	24.1%
	대학원졸	1,920	3.2%	1,534,415	3.5%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22,753	37.9%	18,185,774	40.9%
	배우자 있음	37,295	62.1%	26,274,034	59.1%
20,60대	20대	6,337	39.0%	6,433,854	51.6%
	60대	9,908	61.0%	6,032,424	48.4%

성별에서 남성은 목표 모집단 49.2%에서 표본 46.9%로 2.3% 하락하였고, 여성은 목표 모집단 50.8%에서 표본 53.1%로 2.3% 증가하였다.

교육 정도에서 초졸 이하는 목표 모집단 11.9%에서 표본 17%로 5.1% 상승하였고, 중졸 이하는 목표 모집단 12%에서 표본 13.4%로 1.4% 상승하였고, 고졸은 목표 모집단 37.5%에서 표본 35.7%로 1.8% 하락하였고, 초대졸은 목표 모집단 11%에서 표본 9.9%로 1.1% 하락하였고, 대졸은 목표 모집단 24.1%에서 표본 20.7%로 3.4% 하락하였고, 대학원졸은 목표모집단 3.5%에서 표본 3.2%로 0.3% 하락하였다.

배우자 유무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목표 모집단 40.9%에서 표본 37.9%로 3% 하락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목표 모집단 59.1%에서 표본 62.1%로 3% 상승하였다.

20대와 60대에서 20대는 목표 모집단 51.6%에서 표본 39%로 12.6% 하락하였고, 60대는 목표 모집단 48.4%에서 표본 61%로 12.6% 상승하였다.

#### · 측정설계

2019 경제 활동 인구조사는 인적사항, 일, 구직, 기타 활동, 이전 직장, 무급 가족일 등에 관한 사항의 영역에서 48개 문항을 조사하였다.

[표 2.2] 조사 내용

조사 영역	문항수	조사 항목
인적 사항	5개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일에 관한 사항	17개	취업, 무급가족 종사자, 일시휴직, 부업, 평소근로시간, 취업시간, 추가취업, 산업, 종사자, 규모와 지위, 직업, 고용계약여부 등
구직에 관한 사항	4개	4주간 구직여부, 취업 가능성, 구직경로 및 구직 방법, 구직기간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	5개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최근 구직 시기
이전 직장에 관한 사항	6개	전직 유무, 이직시기, 이직이유, 전직 산업, 전직 종사자 규모, 전직 직업, 종사상 지위
추가 무급가족일에 관한 사항	11개	무급가족일 여부, 근로시간 등

## · 조사 방법

본 조사는 조사담당자가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과 동시에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조사표, CAPI를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6개월 이상 응답지속 가구는 전자조사방법인 인터넷/모바일 CASI도 사용 가능하였다.

## · 가중치 설계 및 무응답 처리

2019 경제활도 인구조사에서는 모집단의 보조 정보(성, 시도, 동읍면부, 연령별 추계연구)를 활용하여 승수를 적용한 승수 적용법으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 설계가중값: 표본가구에 대한 설계가중값(design weight)은 전국에서 표본조사구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의 역수와 각 표본조사구 내 가구조사 완료율의 역수를 곱하여 작성

### 설계 가중값

$$w_{hijk}^0 = \frac{u_h}{n_h u_{hi}} \times \frac{u_{hi}}{20} = \frac{u_h}{n_h 20} (= w_k)$$

↑  
표본  
일반조사구  
추출률  
주출률  
역수

$h$  : 설계층( $h = 1, 2, \dots, 27$ )

$i$  : 일반조사구,  $j$  : 가구,  $k$  : 가구원

$n_h$  :  $h$ 층의 표본 일반조사구수

$u_h$  :  $h$ 층의 총 가구수

$u_{hi}$  :  $h$ 층의  $i$ 일반조사구의 가구수

## - 무응답보정

무응답보정 층별 (시도\*성\*연령\*교육정도\*외국인여부) 응답확률의 역수

## - 사후 가중치 조정

사후 층화를 통해 성·연령 그룹별 27개 설계 층별 추계인구에 맞게 조정

### 사후 가중값

$$w_{hijk} = w_{hijk}^r \times \frac{X_{h,sa}}{\hat{X}_{h,sa}}$$

$X$  : 벤치 마킹 모집단 추정치(추계인구)

$\hat{X}$  : 표본에서 조사된 응답자 총 가중값

$w_{hijk}$  : h층의 I일반 조사구 내 j가구의 k번째 가구원의 사후 가중값

$sa$  : 사후층 (성별 2개, 연령 5세별 11개층)

- 최종가중치

설계가중치에 무응답보정과 사후층화의 곱으로 최종 가중치를 산출

- 무응답 처리

무응답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경제활동인구조사 무응답 보정방안 연구' 가 통계개발원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진행중이며 연구결과에서 나온 방법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반영 예정</li><li>- 단위무응답에 해당하는 가구원 불응(단, 외국인 가구원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제외) 및 항목 불응은 인정하지 않음</li><li>- 응답가구 부재로 인해 해당 월에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도 전자조사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li><li>- 3개월 이상 부재이거나 3개월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장기부재로 간주하여 전출처리</li></ul>
--------	---

### III. 응답자 특성 및 현황

[표 3.1] 응답자 특성 및 현황

		동부		읍면부		총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36,519,014	100.0%	7,940,794	100.0%	44,459,808	100.0%
성별	남자	17,849,451	48.9%	4,009,295	50.5%	21,858,746	49.2%
	여자	18,669,563	51.1%	3,931,499	49.5%	22,601,062	50.8%
교육 정도 컨버젼	초졸이하	3,430,243	9.4%	1,842,742	23.2%	5,272,986	11.9%
	중졸	4,127,841	11.3%	1,204,274	15.2%	5,332,115	12.0%
	고졸	13,798,402	37.8%	2,883,402	36.3%	16,681,804	37.5%
	초대졸	4,159,689	11.4%	752,937	9.5%	4,912,626	11.0%
	대졸	9,606,753	26.3%	1,119,109	14.1%	10,725,862	24.1%
	대학원졸	1,396,085	3.8%	138,329	1.7%	1,534,415	3.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5,146,236	41.5%	3,039,539	38.3%	18,185,774	40.9%
	배우자 있음	21,372,778	58.5%	4,901,255	61.7%	26,274,034	59.1%
20,60대	20대	5,567,002	54.2%	866,852	39.7%	6,433,854	51.6%
	60대	4,713,211	45.8%	1,319,213	60.3%	6,032,424	48.4%

2019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5세 이상 모든 사람 44,459,808명이다. 모집단 중 동부는 36,519,014명(82.14%), 읍면부는 7,940,794명(17.86%)이다. 성별별로는 남자가 21,858,746명(49.2%), 여자가 22,601,062명(50.8%)이다. 교육 정도별로는 초졸 이하가 5,272,986명(11.9%), 중졸이 5,332,115명(12%), 고졸이 16,681,804명(37.5%), 초대졸이 4,912,626명(11%), 대졸이 10,725,862명(24.1%), 대학원졸이 1,534,415명(3.5%)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18,185,774명(40.9%)이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26,274,034명(59.1%)로 나타났다. 20대와 60대별로는 20대가 6,433,854명(51.6%)이고 60대가 6,032,424명(48.4%)로 나타났다.

## IV. 문항 분석

### · 분석 목적 및 배경

요즘 ‘인생은 이모작’이라는 문구가 많이 보인다. 이모작이란 동일한 농장에 각기 다른 두 종류의 농작물을 서로 다른 시기에 재배하는 농법인데 자신의 인생을 농장에 빗대어 20대에 사회에 진출해서 60세에 정년 퇴직하기까지 인생 1막을 경작하고, 은퇴 후 새로운 삶, 제2의 인생을 경작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학습 - 취업 - 은퇴였던 것에 반해 지금은 학습 - 취업 - 학습 - 재취업 - 은퇴로 노년층은 생계활동 유지와 제2의 인생을 위해 다시금 취업에 뛰어들고 있다.

### 고용지표 '역대급 호성적' 뒤엔 질 좋은 일자리 급감·취업 포기자 급증

입력 2019.11.13 13:20 | 수정 2019.11.13 13:2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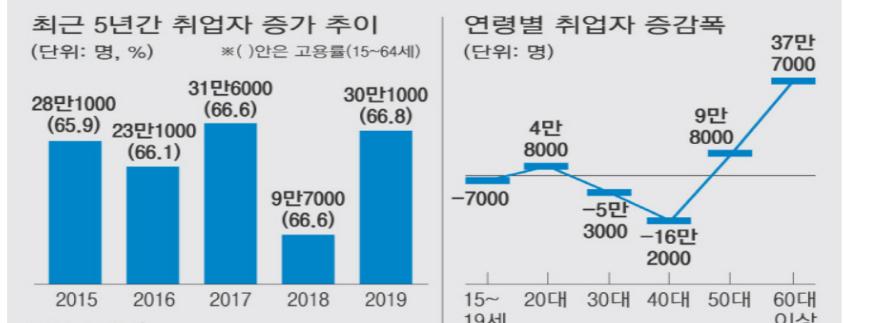
#### 고용률 61% '역대 최고'...60대 늘고, 40대 줄어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입력 : 2020.01.15 22:00

2)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상황은 양적으로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 취업자 수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늘었다. 2018년(9만7000명)의 약 3배 수준이며, 지난해 15세 이상 인구증가 규모(32만2000명)와 비슷한 수치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0.2%포인트 올라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인 66.8%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도 0.2%포인트 올라 1997년(60.9%) 이후 가장 높았다.

하지만 세대별로 희비가 갈렸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정부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37만7000명 증가해 고용증가세를 이끌었다. 50대도 9만8000명 늘었다.

반면 주력 경제활동 인구라고 할 수 있는 40대는 16만2000명, 30대는 5만3000명 감소했다. 특히 40대는 인구감소폭(-13만7000명)보다 고용감소폭이 더 컸다. 고용률도 0.6%포인트 감소했다.

20대는 예술·스포츠·여가 부문과 교육을 중심으로 4만8000명 증가했지만, 주당 근무시간이 17시간을 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적지 않다. 지난해 초단시간 취업은 30만1000명 늘어 1980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에서 7만명이나 늘었다. 청년고용률(43.2%)이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우려스러운 것이다.

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11134344i>

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52200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1152200005)

정부의 고용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취업률은 증가추세에 있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일자리 정책과 특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맞게 인생 2회차를 맞는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 인해 2019년 기준 60대 이상 증감폭은 37만 7000명으로 연령대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앞에 기사자료처럼 확실히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취업률이 높아졌지만 일자리의 질과 안정성 좋지는 않을거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1회차 인생인 20대와 2회차인생인 60대의 취업률과 그 현황을 비교하여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 · 분석 대상

2019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모집단인 44,459,808명 중 “Q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라는 문항에 “1) 예”라고 응답한 25,844,213명과 “Q7.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1) 예”라고 응답한 1,238,781명과 “SQ8-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8)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에 응답한 335,575명을 합한 후 “SQ12. 지난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1) 1~17시간 무급 가족종사자”라고 응답한 96,189명을 제외한 27,322,380명의 취업자 중 취업자를 생년월일로 만나이를 계산 후 20대와 60대로 나눈 20대 3,736,359명, 60대 3,371,002명, 총 7,107,36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Q6. 지난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1) 예                  2) 아니오

Q7. 지난주에,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1시간 이상 일하였습니까?

- 1) 예                  2) 아니오

Q8-1. 지난주에 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일시적 병,사고  
2) 휴가 · 연가  
3) 휴가 · 연가  
4) 육아  
5) 가족적 이유  
6) 노사분규  
7) 사업부진 · 조업중단  
8) 기타(              )

Q12. 지난주에 실제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 1) 1 ~ 17시간 무급가족 종사자  
2) 0 ~ 35 시간  
3) 36시간 이상

[표 4.1] 20대와 60대의 취업자 분포

		20대		60대		총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3,736,359	52.6%	3,371,002	47.4%	7,107,361	100.0%
성별	남자	1,822,810	48.0%	1,971,220	52.0%	3,794,030	53.4%
	여자	1,913,549	57.8%	1,399,782	42.2%	3,313,331	46.6%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10,001	1.3%	789,459	98.7%	799,460	11.2%
	중졸	72,280	8.0%	826,815	92.0%	899,095	12.7%
	고졸	1,421,243	54.8%	1,169,964	45.2%	2,591,208	36.5%
	초대졸	886,483	87.9%	122,329	12.1%	1,008,811	14.2%
	대졸	1,302,765	79.0%	345,937	21.0%	1,648,702	23.2%
	대학원졸	43,587	27.2%	116,497	72.8%	160,084	2.3%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3,382,795	84.2%	634,809	15.8%	4,017,604	56.5%
	배우자 있음	353,565	11.4%	2,736,192	88.6%	3,089,757	43.5%

20대와 60대의 취업자 7,107,361명 중 20대는 3,736,359명(52.6%), 60대는 3,371,002명(47.4%)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보면 남자는 3,794,030명(53.4%), 여자는 3,313,331명(46.6%)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가 799,460명(11.2%), 중졸이 899,095명(12.7%), 고졸이 2,591,208명(36.5%), 초대졸이 1,008,811명(14.2%), 대졸이 1,648,702명(23.2%), 대학원졸이 160,084명(2.3%)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로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4,017,604명(56.5%),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3,089,757명(43.5%)로 나타났다

[표 4.2] 20대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률

		20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율
전체		3,736,359	420,131	2,277,364	89.89%
성별	남자	1,822,810	219,903	1,145,552	89.23%
	여자	1,913,549	200,228	1,131,812	90.53%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10,001	609	8,578	94.26%
	중졸	72,280	5,766	40,165	92.61%
	고졸	1,421,243	150,565	1,596,996	90.42%
	초대졸	886,483	79,684	226,642	91.75%
	대졸	1,302,765	180,301	400,787	87.84%
	대학원졸	43,587	3,207	4,196	93.15%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353,565	7,222	180,269	98.00%
	배우자 없음	3,382,795	412,909	2,097,095	89.12%

취업율의 계산은 통계청에서 정의한 취업자/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업자)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20대의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가 3,736,359명, 실업자가 420,131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277,364명으로 취업율은 89.89%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보면 20대 남자의 취업율은 89.23%로 나타났고, 20대 여성의 취업률은 90.53%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초졸 이하의 취업률은 94.26%로 나타났고, 중졸은 92.61%로, 고졸은 90.42%로, 초대졸은 91.75%로, 대졸은 87.84%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93.15%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취업율은 98%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취업률은 89.12%로 나타났다.

[표 4.3] 60대의 경제활동상태 및 취업률

		60대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율
전체		3,371,002	137,422	2,524,000	96.08%
성별	남자	1,971,220	99,906	869,848	95.18%
	여자	1,399,782	37,516	1,654,152	97.39%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789,459	29,390	649,108	96.41%
	중졸	826,815	35,858	597,177	95.84%
	고졸	1,169,964	52,575	828,794	95.70%
	초대졸	122,329	3,985	62,568	96.85%
	대졸	345,937	12,916	325,829	96.40%
	대학원졸	116,497	2,699	60,525	97.7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있음	2,736,192	94,029	1,909,126	96.68%
	배우자 없음	634,809	43,394	614,874	93.60%

60대의 경제활동 상태는 취업자가 3,371,002명, 실업자가 137,422명, 비경제활동인구는 2,524,000명으로 취업율은 96.08%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별로 보면 60대 남자의 취업율은 95.18%로 나타났고, 60대 여성의 취업률은 97.39%로 나타났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초졸 이하의 취업률은 96.41%로 나타났고, 중졸은 95.84%로, 고졸은 95.7%로, 초대졸은 96.85%로, 대졸은 96.4%로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97.74%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의 취업율은 96.68%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없는 사람의 취업률은 93.6%로 나타났다.

· 분석 문항

Q10. 평소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합니까?

총 \_\_\_\_\_시간

Q1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 2) 건강
- 3) 육아
- 4) 가사
- 5) 통학
- 6) 본인이 원해서
-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 8) 기타(            )

Q14.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3)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Q15.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Q16. 지난 4주 동안, 더 많은 시간 일하기 위해 현재 하는 일을 더 찾아보거나 다른  
일(직장)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 1) 있었음
- 2) 없었음

Q18. 지난주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 1) 1 ~ 4명
- 2) 5 ~ 9명
- 3) 10 ~ 29명
- 4) 30 ~ 90명
- 5) 100 ~ 299명
- 6) 300 ~ 499명
- 7) 500명 이상

Q19. 지난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내가 한 일 \_\_\_\_\_
- 직명(직위) \_\_\_\_\_

Q20.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          |                 |
|----------|-----------------|
|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 1) 상용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 2) 임시근로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 3) 임용근로자 | 6) 무급가족종사자      |

Q22.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1) 정하였음
- 2) 정하지 않았음(정년제 포함)

Q22-1. 고용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 1) 1개월 미만
- 2) 1개월 ~ 6개월 미만
- 3) 6개월 ~ 1년 미만
- 4) 1년
- 5) 1년 초과 ~ 2년
- 6) 2년 초과 ~ 3년
- 7) 3년 초과

## · 분석 결과

### · 주당 총 평균 근로시간

Q10. 평소 1주 동안 총 몇 시간 일합니까?
총 _____ 시간

[표 4.4] 주당 총 평균 근로시간

		평균시간	평균의 표준오차	p-값
전체		40.03	0.168	
성별	남자	42.3	0.228	0.000
	여자	37.43	0.243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38.92	0.467	0.000
	중졸	40.96	0.494	
	고졸	39.15	0.319	
	초대졸	41.96	0.353	
	대졸	40.57	0.291	
	대학원졸	36.81	1.302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39.21	0.227	0.001
	배우자 있음	41.09	0.25	
20,60대	20대	39.61	0.231	0.716
	60대	40.49	0.246	

취업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03시간(약 40시간)으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당 평균 42.3시간(약 42시간 20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37.43시간(약 37시간 25분)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남성과 여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를 교육 정도로 살펴보면 초졸 이하의 경우 주당 평균 38.92시간(약 39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중졸의 경우 주당 평균 40.96시간(약 41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고졸의 경우 주당 평균 39.15시간(약 39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초대졸의 경우 주당 평균 41.96시간(약 42시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대졸의 경우 주당 평균 40.57시간(약 40시간 30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대학원졸의 경우 주당 평균 36.81시간(약 36시간 50분) 동안 근로를 한 것

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교육 정도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이를 배우자 유무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당 평균 39.21시간(약 39시간 10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주당 평균 41.09시간(약 41시간)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1이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배우자 유무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차이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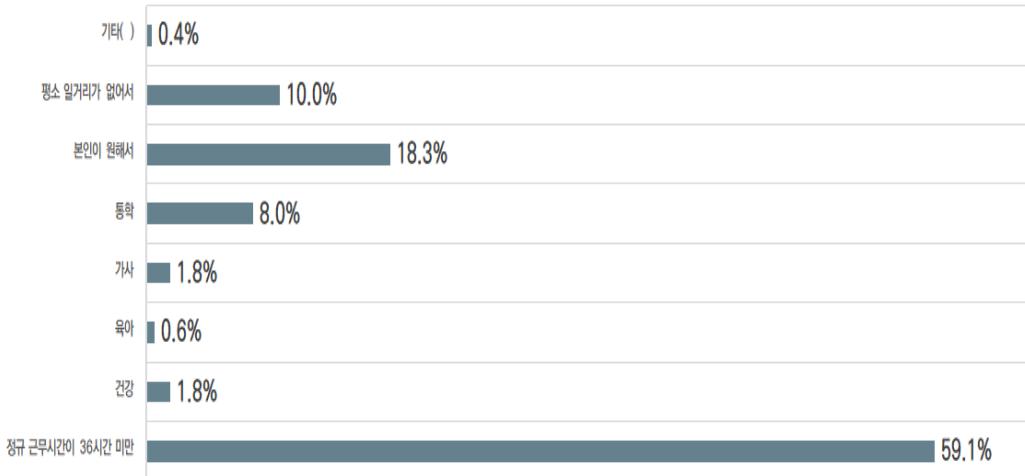
이를 20대와 60대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주당 평균 39.61시간(약 39시간 30분) 동안 근로를 하였으며, 60대의 경우 주당 평균 40.49시간(약 40시간 30분) 동안 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716으로 ”20대와 60대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20대와 60대는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취업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03시간으로 약 4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20대와 60대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

Q11.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 2) 건강
- 3) 육아
- 4) 가사
- 5) 통학
- 6) 본인이 원해서
- 7)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 8) 기타(             )



[표 4.5] 평소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

		정규 근무 시간이 36시간 미만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본인이 원해서	평소 거리가 없어서	기타( )	p-값
전체		59.1%	1.8%	0.6%	1.8%	8.0%	18.3%	10.0%	0.4%	
성별	남자	52.7%	1.4%	0.0%	0.0%	7.7%	21.7%	16.2%	0.4%	0.000
	여자	62.9%	2.0%	1.0%	2.9%	8.2%	16.3%	6.4%	0.3%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57.4%	4.5%	0.5%	3.2%	0.0%	14.4%	19.6%	0.4%	0.000
	중졸	61.6%	3.5%	0.2%	4.1%	0.0%	14.6%	15.9%	0.2%	
	고졸	53.9%	0.9%	0.9%	1.2%	16.2%	19.5%	7.2%	0.2%	
	초대졸	70.4%	0.8%	1.8%	0.0%	0.0%	17.1%	9.9%	0.0%	
	대졸	69.5%	0.0%	0.0%	0.6%	2.5%	22.1%	3.9%	1.3%	
	대학원졸	69.5%	1.9%	0.0%	1.5%	0.0%	26.3%	0.7%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7.9%	0.6%	0.1%	0.4%	13.6%	20.3%	6.6%	0.5%	0.000
	배우자 있음	60.7%	3.3%	1.4%	3.8%	0.1%	15.6%	14.8%	0.2%	
20,60 대	20대	56.0%	0.0%	1.1%	0.0%	17.1%	21.2%	4.1%	0.5%	0.000
	60대	61.7%	3.3%	0.2%	3.3%	0.1%	15.9%	15.2%	0.3%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로는 ”본인이 원해서“가 18.3%로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와 ”통학“이 각각 10%, 8%로 네 가지 항목을 합하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2.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1.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6.2%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여성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2.9%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6.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통학“이 8.2%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7.4%로 가장 높았고,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9.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14.4%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중졸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1.6%로 가장 높았고,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5.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14.6%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고졸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3.9%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9.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통학“이 16.2%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초대졸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70.4%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7.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9.9%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대졸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9.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2.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3.9%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대학원졸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9.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6.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건강“이 1.9%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7.9%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0.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3.6%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0.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5.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4.8%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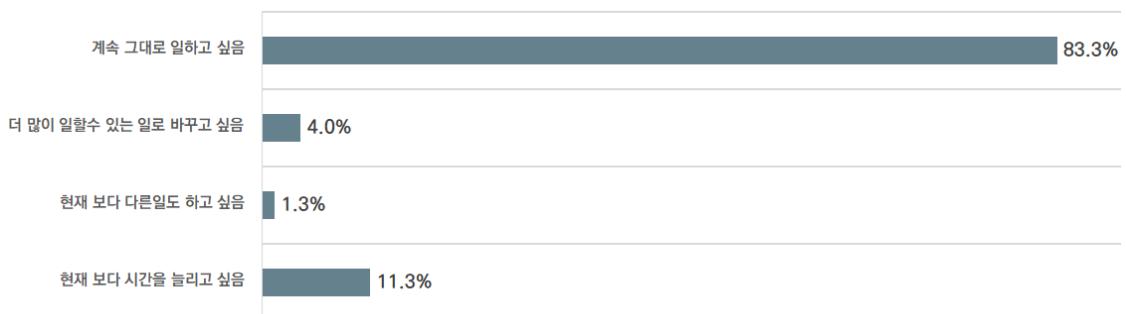
이를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6%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1.2%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통학“이 17.1%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60대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1.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5.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5.2%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는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평소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는 대부분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었고, ”본인이 원해서“도 18.3%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라 ”평소 1주일에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유“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 · 추가 근로 희망 여부

Q14. 지난주에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였습니까?

-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 2)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음
- 3)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일(직장)로 바꾸고 싶음
-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표 4.6] 추가 근로 희망 여부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보다 다른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이 일할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p-값
전체	11.3%	1.3%	4.0%	83.3%	
성별	남자	17.6%	1.0%	5.0%	0.000
	여자	7.0%	1.6%	3.3%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11.4%	1.2%	0.9%	0.000
	중졸	17.1%	1.8%	2.1%	
	고졸	10.0%	1.1%	4.3%	
	초대졸	13.7%	3.3%	9.7%	
	대졸	9.3%	1.3%	6.0%	
	대학원졸	4.1%	0.0%	3.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9.7%	1.5%	6.0%	0.000
	배우자 있음	13.4%	1.1%	1.6%	
20, 60대	20대	7.8%	1.4%	6.8%	0.000
	60대	14.2%	1.3%	1.7%	

추가 근로희망 여부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3.3%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1.3%로 두 번째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6.5%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7.6%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성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8.1%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7.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른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6.5%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1.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중졸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9.0%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7.1%로 두 번째로 높았다. 고졸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4.7%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0%로 두 번째로 높았다. 초대졸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3.2%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3.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졸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3.3%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9.3%로 두 번째로 높았다. 대학원졸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92.9%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4.1%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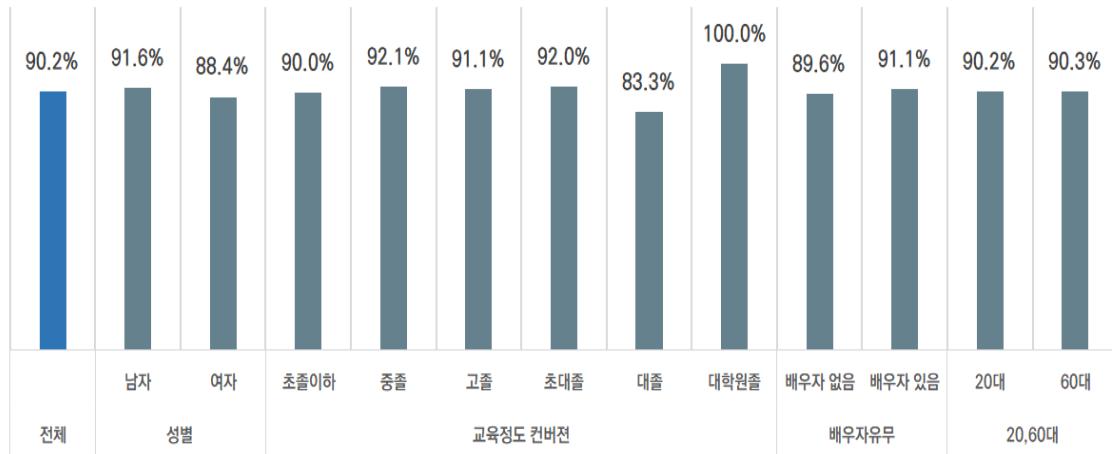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2.8%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9.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3.9%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3.4%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4%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7.8%로 두 번째로 높았다. 여성은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2.8%로 가장 높았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4.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는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20대와 60대는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추가 근로희망 여부는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3.3%로 대부분이었고,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1.3%로 두 번째를 차지하였다. 또한,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라 ”추가 근로희망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 추가 취업 가능성

Q15. 지난주에, 일이 더 주어졌거나 더 많은 시간 일할 수 있는 다른 일(직장)이 주어졌다면 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표 4.7] 추가 취업 가능성

		있었음	없었음	p-값
전체		90.2%	9.8%	
성별	남자	91.6%	8.4%	0.358
	여자	88.4%	11.6%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90.0%	10.0%	0.682
	중졸	92.1%	7.9%	
	고졸	91.1%	8.9%	
	초대졸	92.0%	8.0%	
	대학원졸	100.0%	0.0%	
	대졸	83.3%	16.7%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89.6%	10.4%	0.647
	배우자 있음	91.1%	8.9%	
20,60대	20대	90.2%	9.8%	0.973
	60대	90.3%	9.7%	

추가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 중 90.2%가 추가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91.6%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여성은 88.4%가 추가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358으로 "성별에 따른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추가 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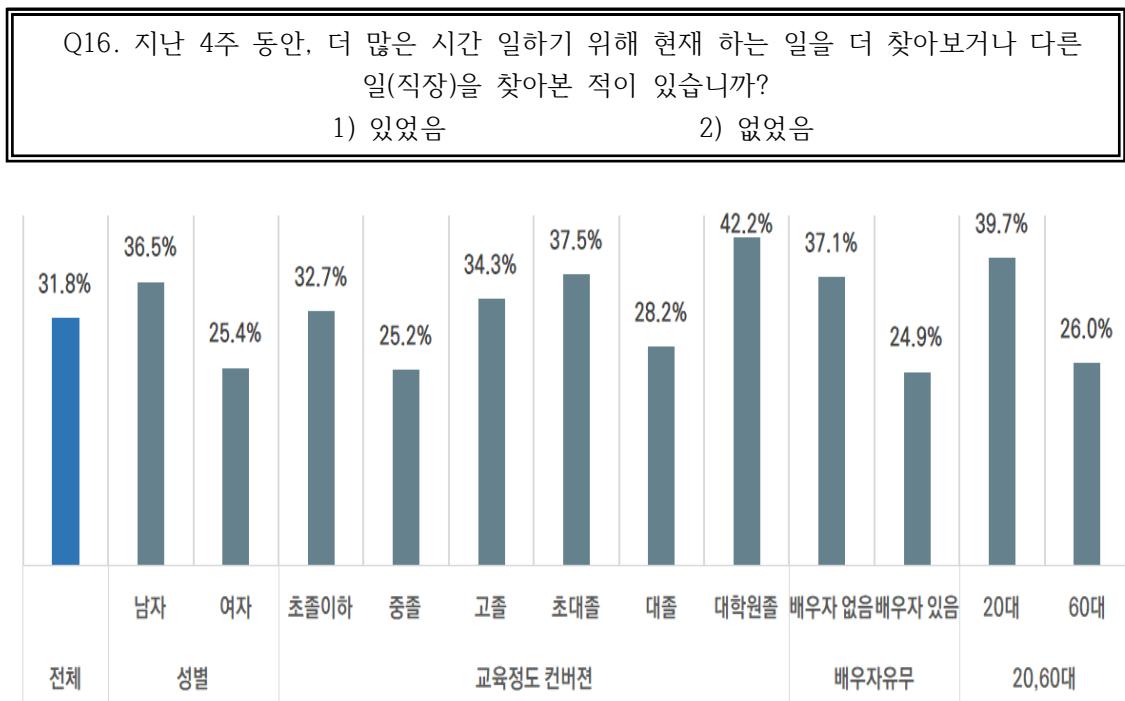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90%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중졸은 92.1%가 추가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고졸은 91.1%가 추가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초대졸은 92%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대졸은 83.3%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100%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682으로 "교육 정도에 따른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89.6%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90.3%가 추가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647으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90.2%가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고, 60대는 90.3%가 추가취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973으로 "20대와 60대는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추가 근무를 원하는 사람 중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90.2%로 대부분이었고, 대학원졸은 100%로 모두 추가취업 가능성이 있다고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라 "추가취업 가능성"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 지난 4주내 추가 취업 구직 여부



[표 4.8] 지난 4주 추가 취업 구직 여부

		있었음	없었음	p-값
전체		31.8%	68.2%	
성별	남자	36.5%	63.5%	0.052
	여자	25.4%	74.6%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32.7%	67.3%	0.824
	중졸	25.2%	74.8%	
	고졸	34.3%	65.7%	
	초대졸	37.5%	62.5%	
	대졸	28.2%	71.8%	
	대학원졸	42.2%	57.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37.1%	62.9%	0.28
	배우자 있음	24.9%	75.1%	
20,60대	20대	39.7%	60.3%	0.018
	60대	26.0%	74.0%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중 31.8%는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36.5%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여성은 25.4%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52로 "성별에 따른 지난 4주내 추가취업 구직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32.7%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중졸은 25.2%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고졸은 34.3%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초대졸은 37.5%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대졸은 28.2%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으며, 대학원졸은 42.2%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824로 "교육 정도에 따른 지난 4주내 추가취업 구직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37.1%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4.9%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28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지난 4주 내 추가취업 구직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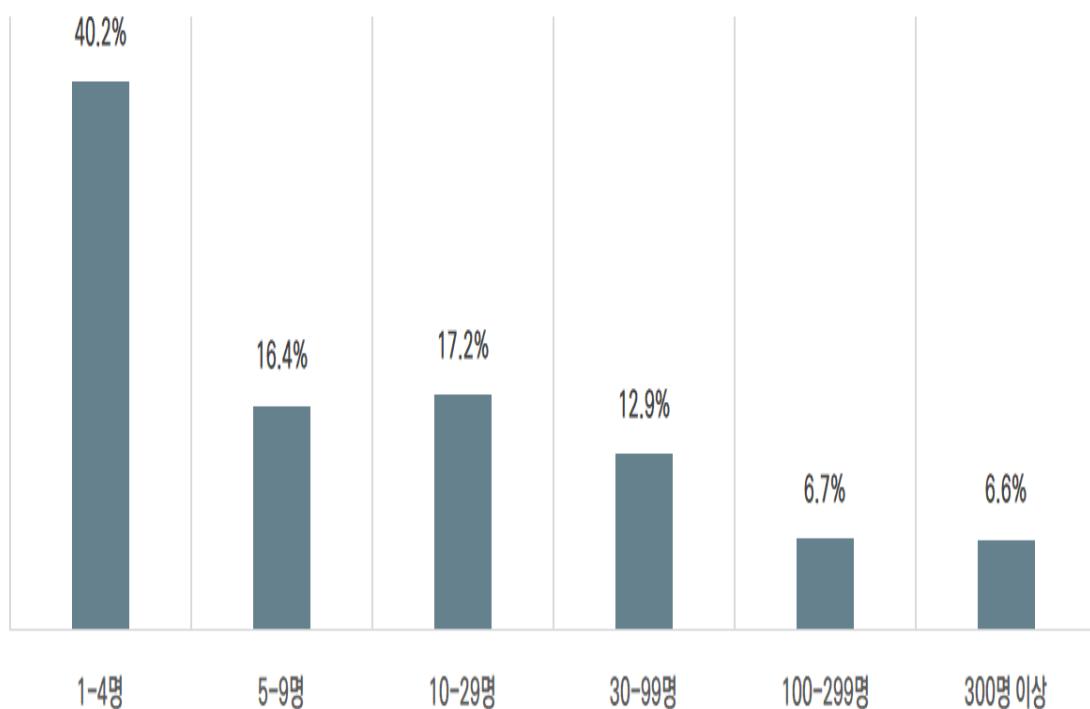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39.7%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고, 60대는 26%가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18로 "20대와 60대는 지난 4주내 추가취업 구직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20대와 60대는 "지난 4주 내 추가취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 중 추가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68.2%로 대부분이었다.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지난 4주내 추가취업 구직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20대와 60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 종사자 규모

Q18. 지난주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 1) 1 ~ 4명
- 2) 5 ~ 9명
- 3) 10 ~ 29명
- 4) 30 ~ 90명
- 5) 100 ~ 299명
- 6) 300 ~ 499명
- 7) 500명 이상



[표 4.9] 종사자 규모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p-값
전체		40.2%	16.4%	17.2%	12.9%	6.7%	6.6%	
성별	남자	40.7%	15.8%	17.2%	13.0%	7.0%	6.3%	0.538
	여자	39.6%	17.1%	17.2%	12.7%	6.4%	6.9%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62.3%	14.3%	13.7%	7.5%	1.8%	0.4%	0.000
	중졸	56.0%	15.8%	15.9%	8.7%	2.5%	1.0%	
	고졸	47.1%	17.4%	15.1%	10.6%	5.4%	4.3%	
	초대졸	23.1%	20.2%	22.7%	17.3%	9.0%	7.8%	
	대졸	21.4%	14.4%	19.6%	18.0%	11.9%	14.7%	
	대학원졸	31.5%	11.4%	16.1%	18.9%	8.2%	14.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29.4%	18.5%	18.8%	14.9%	9.1%	9.3%	0.000
	배우자 있음	54.2%	13.8%	15.1%	10.2%	3.6%	3.1%	
20,60대	20대	25.5%	18.6%	19.4%	15.8%	9.8%	10.9%	0.000
	60대	56.5%	14.0%	14.8%	9.6%	3.3%	1.8%	

종사자 규모는 "1 ~ 4명"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 ~ 9명"이 16.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1 ~ 4명"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7.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1 ~ 4명"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7.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538로 "성별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1 ~ 4명"이 6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 ~ 9명"이 1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졸은 "1 ~ 4명"이 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5.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1 ~ 4명"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5 ~ 9명"이 1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초대졸은 "1 ~ 4명"이 2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2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졸은 "1 ~ 4명"이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9.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졸은 "1 ~ 4명"이 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 ~ 99명"이 18.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종사

자 규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1 ~ 4명“이 2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8.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 ~ 4명“이 5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5.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1 ~ 4명“이 2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9.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1 ~ 4명“이 5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 ~ 29명“이 14.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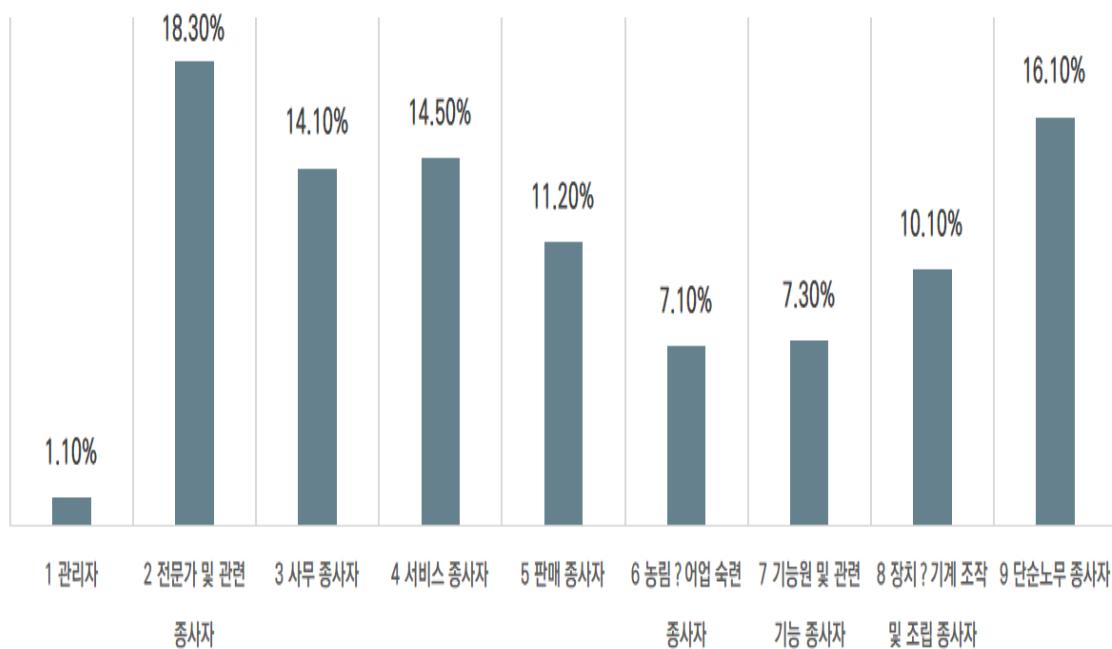
종합적으로 종사자 규모는 ”1 ~ 4명“이 4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또한, 유의수준 5% 하에서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라서는 종사자 규모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성별은 분포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직업

Q19. 지난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내가 한 일 \_\_\_\_\_

■ 직명(직위) \_\_\_\_\_



[표 4.10] 직업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림 어업 관련 종사자	7 기업원 및 관련 등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동 종사자	p-값
전체		1.1%	18.3 %	14.1 %	14.5 %	11.2 %	7.1%	7.3%	10.1 %	16.1 %	
성별	남자	1.8%	14.4 %	10.6 %	9.5%	10.3 %	7.7%	11.9 %	17.0 %	16.7 %	0.000
	여자	0.4%	22.9 %	18.1 %	20.3 %	12.2 %	6.5%	2.1%	2.1%	15.5 %	
교육 정도 커버 전	초졸 이하	0.0%	0.6%	0.5%	13.3 %	6.7%	26.4 %	9.3%	7.7%	35.5 %	0.000
	중졸	0.1%	0.6%	2.2%	16.4 %	9.3%	14.1 %	12.5 %	15.3 %	29.5 %	
	고졸	0.7%	8.3%	10.6 %	19.9 %	15.5 %	4.7%	8.2%	14.3 %	17.8 %	
	초대졸	0.7%	31.1 %	19.2 %	15.0 %	10.6 %	1.7%	7.8%	8.8%	5.0%	
	대졸	2.3%	39.9 %	29.9 %	6.6%	9.0%	1.6%	2.4%	3.4%	5.0%	
	대학원졸	11.1 %	66.1 %	10.4 %	0.8%	3.0%	3.1%	1.8%	1.6%	2.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0.3%	25.0 %	19.5 %	17.3 %	11.5 %	1.5%	5.4%	6.8%	12.7 %	0.000
	배우자 있음	2.2%	9.7%	7.2%	10.9 %	10.8 %	14.5 %	9.9%	14.3 %	20.5 %	
20,60 대	20대	0.2%	28.3 %	22.1 %	16.1 %	11.8 %	0.7%	5.3%	7.2%	8.2%	0.000
	60대	2.1%	7.3%	5.2%	12.8 %	10.5 %	14.3 %	9.6%	13.2 %	25.0 %	

직업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16.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1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4.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종사자“가 20.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가 26.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졸은 ”단순 노무 종사자“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비스 종사자“가 16.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서비스 종사자“가 1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단순 노무 종사자“가 17.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초대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가 19.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가 29.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졸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6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리자“가 11.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가 19.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가 14.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 종사자“가 22.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가 1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차이는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직업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1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단순 노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사무 종사자“ 순서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라서 직업에 모두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 종사상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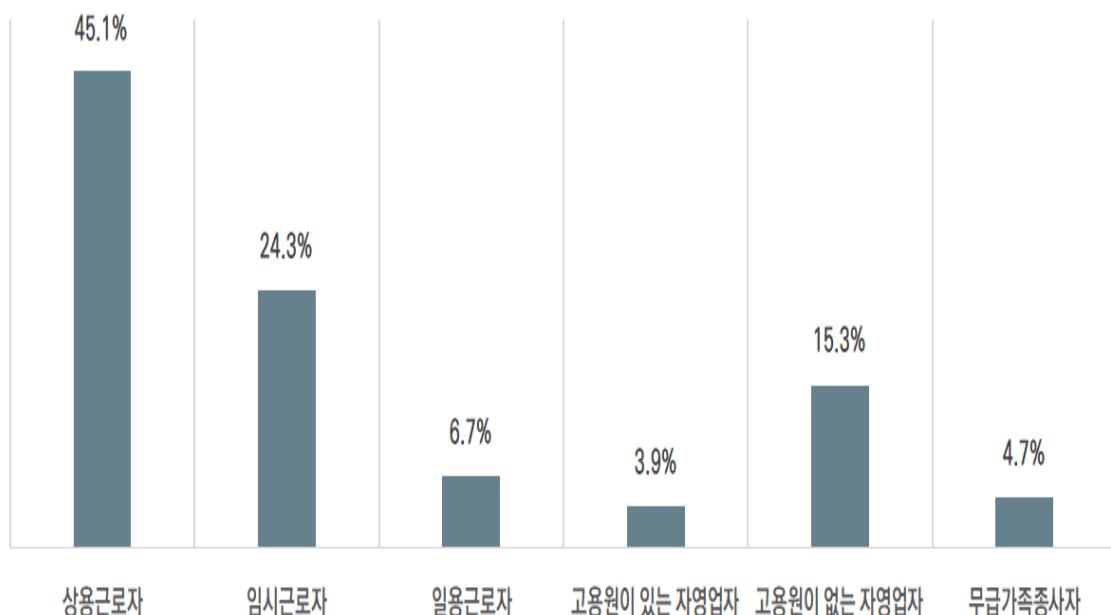
Q20.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 1) 상용근로자
- 2) 임시근로자
- 3) 임용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 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6) 무급가족종사자



[표 4.11]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p-값
전체		45.1%	24.3%	6.7%	3.9%	15.3%	4.7%	
성별	남자	43.9%	20.6%	7.4%	5.6%	20.9%	1.6%	0.000
	여자	46.4%	28.5%	6.0%	2.0%	8.9%	8.3%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16.9%	23.8%	12.8%	3.2%	28.1%	15.1%	0.000
	중졸	24.0%	24.6%	11.7%	4.9%	26.1%	8.7%	
	고졸	34.3%	31.9%	8.5%	4.3%	17.3%	3.7%	
	초대졸	69.4%	19.4%	1.9%	1.8%	5.9%	1.7%	
	대졸	70.9%	16.3%	1.9%	3.8%	6.1%	1.1%	
	대학원졸	59.8%	16.8%	0.6%	10.1%	11.6%	1.1%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5.8%	28.1%	6.6%	1.6%	6.7%	1.2%	0.000
	배우자 있음	31.1%	19.4%	6.9%	6.9%	26.5%	9.3%	
20,60대	20대	62.0%	26.7%	5.2%	0.9%	3.6%	1.4%	0.000
	60대	26.3%	21.6%	8.4%	7.2%	28.2%	8.3%	

종사상 지위는 "상용 근로자"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24.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상용 근로자"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0.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상용 근로자"가 4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28.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정도로 보면 초졸 이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23.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졸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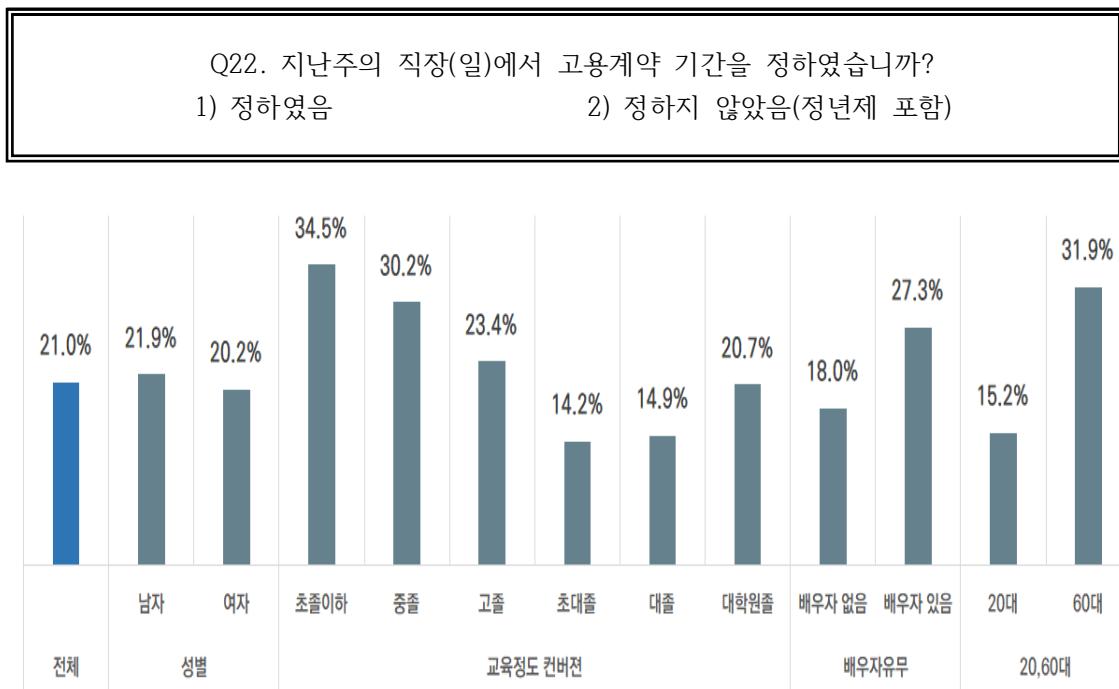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24.6%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상용 근로자“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31.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초대졸은 ”상용 근로자“가 69.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19.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졸은 ”상용 근로자“가 7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16.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졸은 ”상용 근로자“가 5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16.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상용 근로자“가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28.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상용 근로자“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6.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상용 근로자“가 6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임시 근로자“가 26.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용 근로자“가 26.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 -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종사상 지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상용 근로자“가 4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시 근로자“가 24.3%로 두 항목을 합치면 6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유의수준 5% 하에서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라 종사상 지위에 유의한 분포의 차이를 보였다.

· 고용계약 여부



[표 4.12] 고용계약 여부

		정했음	정하지 않았음	p-값
전체		21.0%	79.0%	
성별	남자	21.9%	78.1%	0.133
	여자	20.2%	79.8%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34.5%	65.5%	0.000
	중졸	30.2%	69.8%	
	고졸	23.4%	76.6%	
	초대졸	14.2%	85.8%	
	대졸	14.9%	85.1%	
	대학원졸	20.7%	79.3%	
배우자유무	배우자 없음	18.0%	82.0%	0.000
	배우자 있음	27.3%	72.7%	
20,60대	20대	15.2%	84.8%	0.000
	60대	31.9%	68.1%	

임금 근로자 중 전체 21%가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별로 보면 남성 중 21.9%가 고용계약을 하였고, 여성 중 20.2%가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133으로 "성별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초졸 이하 중 34.5%가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중졸 중 30.2%가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고졸 중 23.4%가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초대졸 중 14.2%가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대졸 중 14.9%가 고용계약을 하였으며, 대학원졸 중 20.7%가 고용계약을 하였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사람 중 18%가 고용계약을 하였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 중 27.3%가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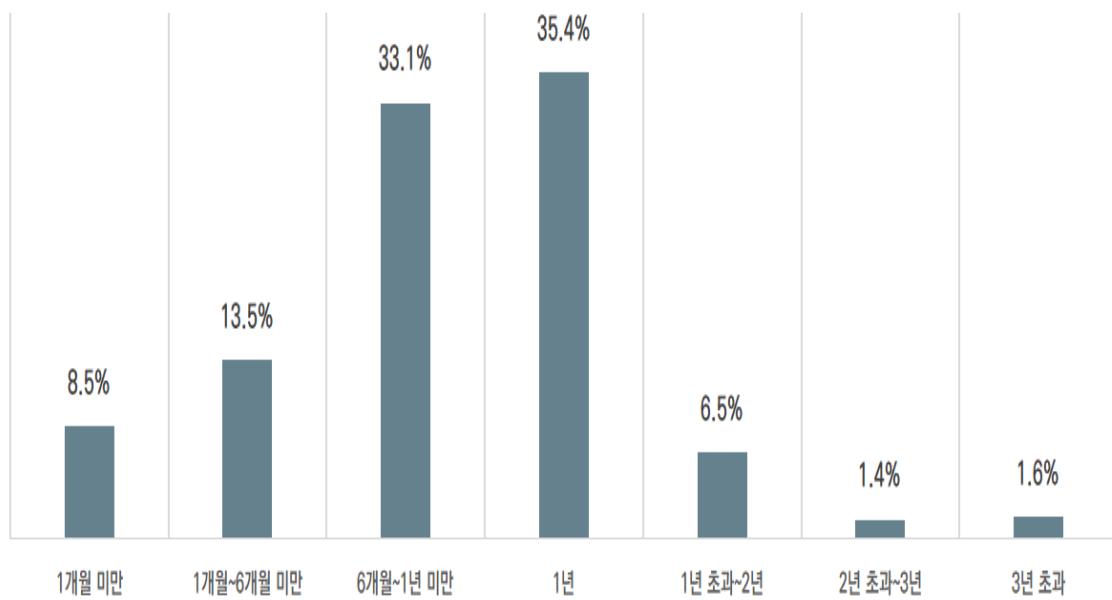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 중 15.2%가 고용계약을 하였고, 60대 중 31.9%가 고용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임금 근로자 중 전체 21%가 고용계약을 했다.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로 따라서는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성별에 따라서는 고용계약 여부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 고용계약 기간

Q22-1. 고용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 1) 1개월 미만
- 2) 1개월 ~ 6개월 미만
- 3) 6개월 ~ 1년 미만
- 4) 1년
- 5) 1년 초과 ~ 2년
- 6) 2년 초과 ~ 3년
- 7) 3년 초과



[표 4.13] 고용계약 기간

		1개월 미만	1개월 ~6개 월 미만	6개월 ~1년 미만	1년	1년 초과~ 2년	2년 초과~ 3년	3년 초과	p-값
전체		8.5%	13.5%	33.1%	35.4%	6.5%	1.4%	1.6%	X
성별	남자	11.0%	12.4%	30.4%	35.7%	6.2%	2.0%	2.2%	0.004
	여자	5.8%	14.6%	36.1%	34.9%	6.9%	0.8%	0.9%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12.6%	12.1%	42.1%	30.0%	2.7%	0.4%	0.2%	0.000
	중졸	15.9%	9.4%	39.1%	28.7%	6.2%	0.4%	0.2%	
	고졸	10.0%	16.1%	34.5%	31.9%	3.6%	1.4%	2.4%	
	초대졸	1.3%	9.1%	25.5%	48.3%	13.2%	0.4%	2.1%	
	대졸	2.5%	15.2%	24.7%	42.3%	10.3%	3.5%	1.5%	
	대학원졸	0.0%	7.8%	27.4%	45.7%	15.5%	1.2%	2.4%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7.2%	17.3%	32.5%	31.4%	8.5%	1.7%	1.4%	0.000
	배우자 있음	10.3%	8.2%	33.9%	40.7%	3.9%	1.1%	1.9%	
20,60 대	20대	6.0%	18.6%	28.3%	33.4%	9.9%	2.2%	1.6%	0.000
	60대	10.8%	8.9%	37.3%	37.1%	3.5%	0.7%	1.6%	

고용계약을 한 임금 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은 "1년"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33.1%로 두 번째로 나타났다.

성별별로 보면 남성은 "1년"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30.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은 "6개월 ~ 1년 미만"이 3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이 34.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4로 "성별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성별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정도별로 보면 초졸 이하는 "6개월 ~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이 30%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중졸은 "6개월 ~ 1년 미만"이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이 28.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고졸은 "6개월 ~ 1년 미만"이 34.5%로 가

장 높게 나타났고, ”1년“이 31.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초대졸은 ”1년“이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25.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졸은 ”1년“이 4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24.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대학원졸은 ”1년“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27.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교육 정도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 유무별로 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 ”6개월 ~ 1년 미만“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이 31.4%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1년“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33.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배우자 유무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대와 60대로 보면 20대는 ”1년“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3%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60대는 ”6개월 ~ 1년 미만“이 3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이 37.1%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유의수준 5% 하에서 p-값이 0.000보다 작으므로 ”20대와 60대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따라서, 20대와 60대에 따른 고용계약 기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고용계약을 한 임금 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은 6개월부터 1년을 포함한 기간이 총 68.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대와 60대에 따른 고용계약기간의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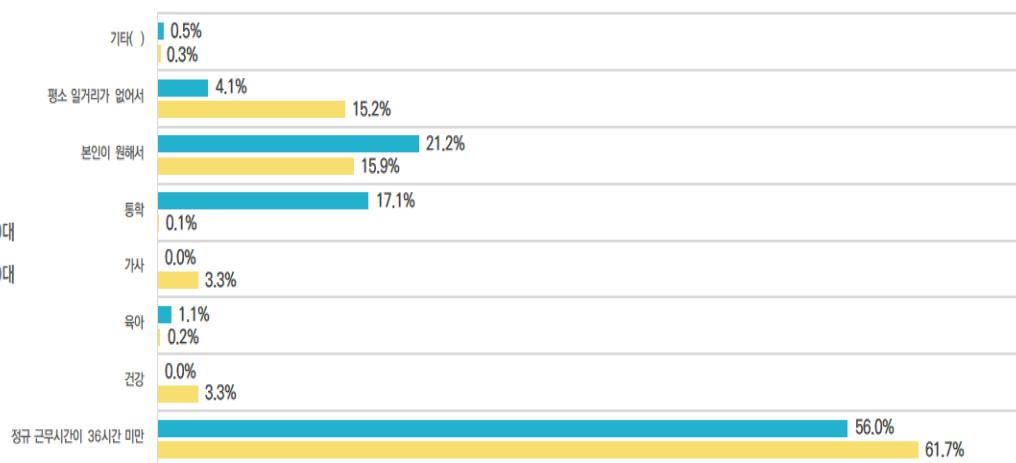
## · 20, 60대별 문항 표

앞서 분석한 문항들에서 20,60대에 따라 분포에 유의한 차이가 있던 문항들을 20대 60대 별로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표 4.14] 20대 60대별 평소 주 36시간 미만 근로 사유

		20대							
		정규 근무 시간이 36 시간 미만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본인이 원해서	평소 일거리 가 없어서	기타( )
전체		56.0%	0.0%	1.1%	0.0%	17.1%	21.2%	4.1%	0.5%
성별	남자	54.5%	0.0%	0.0%	0.0%	14.8%	23.9%	6.4%	0.4%
	여자	57.0%	0.0%	1.9%	0.0%	18.7%	19.3%	2.4%	0.6%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100.0 %	0.0%	0.0%	0.0%	0.0%	0.0%	0.0%	0.0%
	중졸	63.0%	0.0%	0.0%	0.0%	0.0%	19.8%	17.2%	0.0%
	고졸	49.0%	0.0%	1.3%	0.0%	24.1%	22.2%	3.1%	0.3%
	초대졸	77.7%	0.0%	2.4%	0.0%	0.0%	12.3%	7.5%	0.0%
	대졸	69.3%	0.0%	0.0%	0.0%	3.9%	20.2%	5.0%	1.6%
	대학원 졸	53.9%	0.0%	0.0%	0.0%	0.0%	46.1%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55.3%	0.0%	0.0%	0.0%	18.1%	21.9%	4.2%	0.5%
	배우자 있음	69.0%	0.0%	20.9%	0.0%	0.0%	8.2%	2.0%	0.0%

		60대							
정규 근무 시간이 36시간 미만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본인이 원해서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기타( )	
전체		61.7%	3.3%	0.2%	3.3%	0.1%	15.9%	15.2%	0.3%
성별	남자	50.8%	2.8%	0.0%	0.0%	0.3%	19.5%	26.3%	0.4%
	여자	67.5%	3.5%	0.3%	5.1%	0.0%	14.0%	9.4%	0.2%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57.1%	4.5%	0.5%	3.2%	0.0%	14.5%	19.7%	0.4%
	중졸	61.5%	3.7%	0.2%	4.4%	0.0%	14.2%	15.9%	0.2%
	고졸	63.7%	2.8%	0.0%	3.5%	0.3%	14.1%	15.5%	0.0%
	초대졸	51.0%	2.9%	0.0%	0.0%	0.0%	29.8%	16.4%	0.0%
	대졸	70.0%	0.0%	0.0%	1.6%	0.0%	25.4%	2.1%	0.9%
	대학원 졸	77.3%	2.9%	0.0%	2.3%	0.0%	16.4%	1.1%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66.0%	2.5%	0.5%	1.5%	0.0%	15.3%	14.0%	0.2%
	배우자 있음	60.2%	3.6%	0.1%	4.0%	0.1%	16.1%	15.6%	0.3%



평소 1주일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이유로는 20대와 60대 모두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이유가 각각 56%와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평소 본인이 원해서”가 각각 21.2%, 19.5%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20대는 “통학”이 17.1%로 높았고 60대는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5.2%로 높았다 20대, 60대 모두 이 세 가지 항목을 합하면 각각 94.3%와 96.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성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4.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3.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통학”이 14.8%로 세 번째로 높았다. 60대 남성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0.8%로 가장 높았고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26.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19.5%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여성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9.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통학”이 18.7%로 세 번째로 높았다. 60대 여성은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7.5%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4.0%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 9.4%로 세 번째로 높았다.

교육정도 컨버전 별로 살펴보면 60대 초졸이하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7.1%로 가장 높았고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9.7%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14.5%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중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3%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9.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7.2%로 세 번째로 높았다. 60대 중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1.5%로 가장 높았고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5.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14.2%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고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49%로 가장 높았고 “통학”이 24.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22.2%로 세 번째로 높았다. 60대 고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3.7%로 가장 높았고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5.5%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14.1%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초대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77.7%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2.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7.5%로 세 번째로 높았다. 60대 초대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1%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9.8%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6.4%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대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9.3%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0.2%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5%로 세 번째로 높았다. 60대 대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70%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5.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2.1%로 세 번째로 높았다.

20대 대학원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3.9%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46.1%로 두 문항이 전체를 차지했다. 60대 대학원졸에서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77.3%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6.4%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건강”이 2.9%로 세 번째로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55.3%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21.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통학”이 18.1%로 세 번째로 높았다.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6%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5.3%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4%로 세 번째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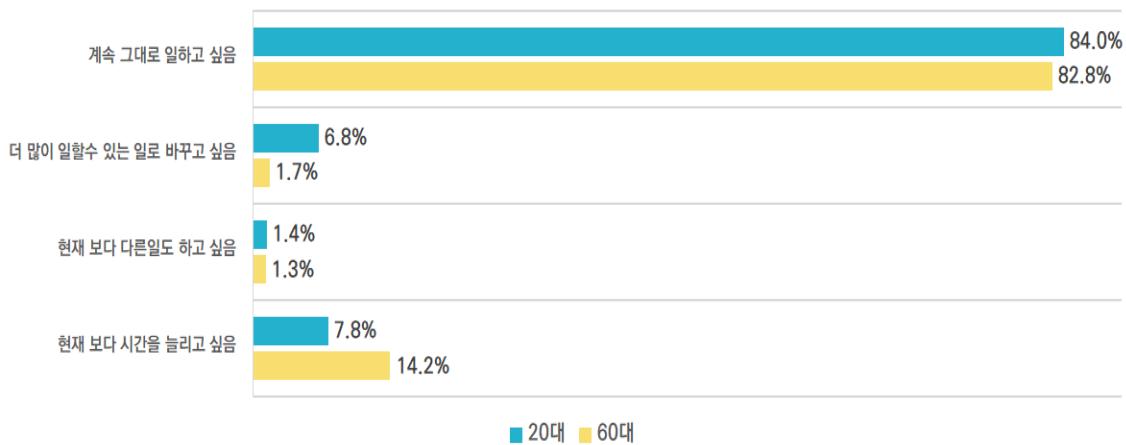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9%로 가장 높았고 “육아”가 20.9%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본인이 원해서”가 8.2%로 세 번째로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60대는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이 60.2%로 가장 높았고 “본인이 원해서”가 16.1%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15.6%로 세 번째로 높았다.

[표 4.15] 20대 60대별 추가 근로 희망 여부

		20대			
		현재 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 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이 일하고 싶음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전체		7.8%	1.4%	6.8%	84.0%
성별	남자	10.3%	1.2%	8.4%	80.1%
	여자	6.1%	1.5%	5.6%	86.7%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31.6%	0.0%	0.0%	68.4%
	중졸	35.8%	0.0%	0.0%	64.2%
	고졸	5.8%	1.0%	5.4%	87.8%
	초대졸	12.0%	3.2%	13.1%	71.7%
	대졸	9.3%	2.0%	8.9%	79.8%
	대학원졸	0.0%	0.0%	0.0%	10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8.0%	1.5%	7.3%	83.3%
	배우자 있음	6.3%	0.0%	0.9%	92.7%

		60대			
		현재 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	현재 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	더 많이 일하고 싶음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
전체		14.2%	1.3%	1.7%	82.8%
성별	남자	23.4%	0.7%	2.2%	73.6%
	여자	7.8%	1.7%	1.4%	89.1%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11.3%	1.2%	0.9%	86.6%
	중졸	16.0%	1.9%	2.2%	79.9%
	고졸	17.0%	1.2%	2.5%	79.4%
	초대졸	18.7%	3.8%	0.0%	77.5%
	대졸	9.5%	0.0%	0.4%	90.1%
	대학원졸	6.0%	0.0%	4.4%	89.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4.7%	1.6%	2.2%	81.6%
	배우자 있음	14.0%	1.2%	1.6%	83.2%



20대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7.8%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4%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6.8%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4.2%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3%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1.7%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남성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0.3%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2%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8.4%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남성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23.4%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0.7%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2.2%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여성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6.1%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5%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5.6%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여성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7.8%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7%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1.4%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9.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초졸 이하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31.6%로 나타났고,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68.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초졸 이하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1.3%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2%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0.9%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6.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의 중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35.8%로 나타났고,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64.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중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6%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9%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2.2%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9.9%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고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5.8%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5.4%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7.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고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7%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2%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2.5%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9.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초대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2%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3.2%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13.1%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1.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초대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8.7%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3.8%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0%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7.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0대 대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9.3%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2%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8.9%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79.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60대 대졸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9.5%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0%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0.4%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20대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8%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5%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7.3%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3.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없는 60대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4.7%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6%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2.2%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1.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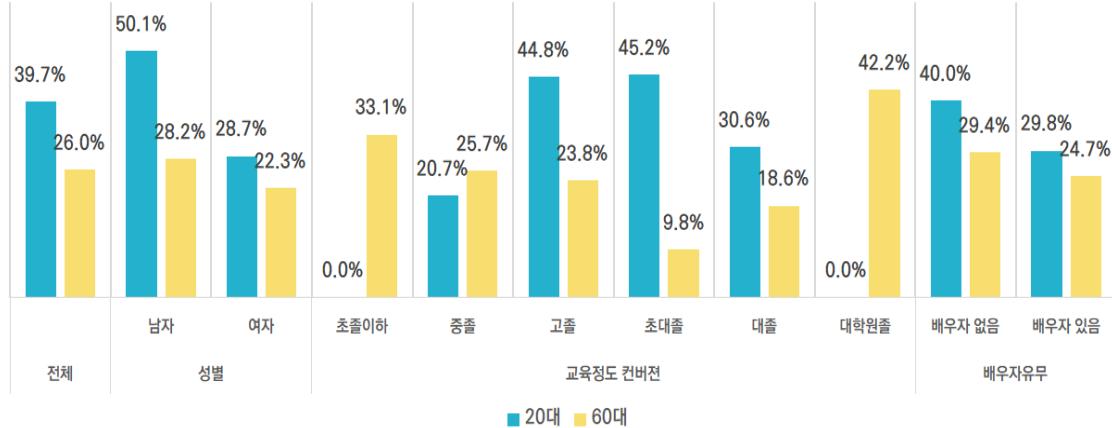
배우자가 있는 20대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6.3%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0%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0.9%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92.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배우자가 있는 60대의 추가 근로희망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보다 시간을 늘리고 싶음”이 14%로 나타났고, “현재보다 다른 일도 하고 싶음”이 1.2%로 나타났으며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이 1.6%로 나타났으며,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83.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종합해보면 20대 60대 성별별로, 교육 정도별로, 배우자 유무 별로 추가 근로희망 여부에 관해 모두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16] 20대 60대별 지난 4주 내 추가 구직 여부

		20대		60대	
		있었음	없었음	있었음	없었음
전체		39.7%	60.3%	26.0%	74.0%
성별	남자	50.1%	49.9%	28.2%	71.8%
	여자	28.7%	71.3%	22.3%	77.7%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0.0%	100.0%	33.1%	66.9%
	중졸	20.7%	79.3%	25.7%	74.3%
	고졸	44.8%	55.2%	23.8%	76.2%
	초대졸	45.2%	54.8%	9.8%	90.2%
	대졸	30.6%	69.4%	18.6%	81.4%
	대학원졸	0.0%	0.0%	42.2%	57.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40.0%	60.0%	29.4%	70.6%
	배우자 있음	29.8%	70.2%	24.7%	75.3%



20대와 60대의 지난 4주내 추가취업 구직여부를 보면 20대는 “있었음”이 39.7%, “없었음”이 60.3%로 나타났고, 60대는 “있었음”이 26%, “없었음”이 74%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은 “있었음”이 50.1%, “없었음”이 49.9%로 나타났고 60대 남성은 “있었음”이 28.2%, “없었음”이 71.8%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은 “있었음”이 28.7%, “없었음”이 71.3%로 나타났고 60대 여성은 “있었음”이 22.3%, “없었음”이 77.7%로 나타났다.

이를 교육 정도 컨버전으로 살펴보면 20대 초졸 이하는 “있었음”이 0%, “없었음”이 100%로 나타났고 60대 초졸 이하는 “있었음”이 33.1%, “없었음”이 66.9%로 나타났다. 20대 중졸

은 “있었음”이 20.7%, “없었음”이 79.3%로 나타났고 60대 중졸은 “있었음”이 25.7%, “없었음”이 74.3%로 나타났다. 20대 고졸은 “있었음”이 44.8%, “없었음”이 55.2%로 나타났고 60대 고졸은 “있었음”이 23.8%, “없었음”이 76.2%로 나타났다. 20대 초대졸은 “있었음”이 45.2%, “없었음”이 54.8%로 나타났고 60대 초대졸은 “있었음”이 9.8%, “없었음”이 90.2%로 나타났다. 20대 대졸은 “있었음”이 30.6%, “없었음”이 69.4%로 나타났고 60대 초대졸은 “있었음”이 18.6%, “없었음”이 81.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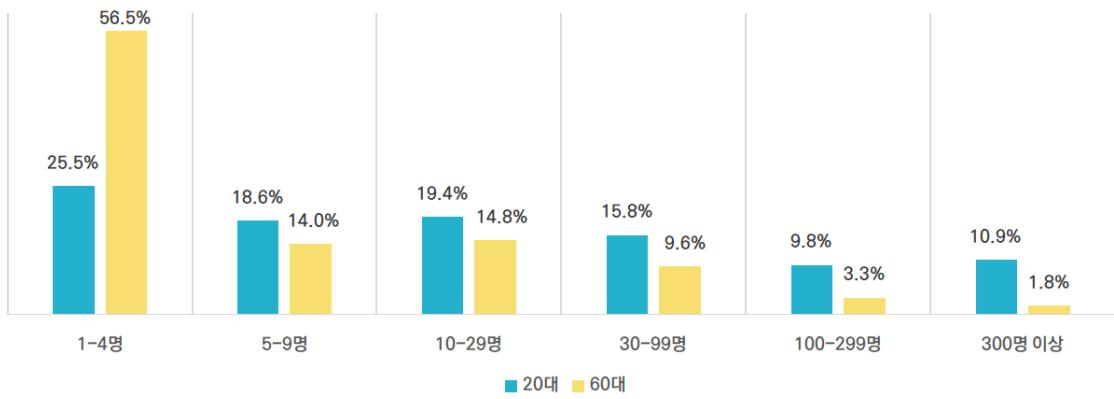
이를 배우자 유무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있었음”이 40%, “없었음”이 60%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있었음”이 29.4%, “없었음”이 70.6%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있었음”이 29.8%, “없었음”이 70.2%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있었음”이 24.7%, “없었음”이 75.3%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20대, 60대 모두 4주간 추가 근로를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안하는 사람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적게 나타났다.

[표 4.17] 20대 60대별 종사자 규모

		20대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25.5%	18.6%	19.4%	15.8%	9.8%	10.9%
성별	남자	25.0%	17.7%	20.3%	15.9%	10.2%	10.8%
	여자	26.0%	19.6%	18.4%	15.7%	9.3%	11.0%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31.2%	27.5%	34.8%	6.5%	0.0%	0.0%
	중졸	42.7%	19.9%	21.6%	13.9%	1.9%	0.0%
	고졸	38.6%	20.9%	16.0%	11.1%	7.3%	6.1%
	초대졸	20.1%	21.3%	23.2%	17.6%	9.0%	8.8%
	대졸	14.4%	14.6%	20.3%	19.5%	13.5%	17.7%
	대학원졸	13.4%	6.8%	17.9%	27.6%	9.5%	24.8%
배우자유 무	배우자 없음	25.2%	18.8%	19.3%	15.7%	10.1%	10.8%
	배우자 있음	28.4%	16.7%	19.7%	16.7%	6.6%	11.9%

		60대					
		1-4명	5-9명	10-29명	30-99명	100-299명	300명 이상
전체		56.5%	14.0%	14.8%	9.6%	3.3%	1.8%
성별	남자	55.3%	14.1%	14.2%	10.3%	4.0%	2.2%
	여자	58.1%	13.9%	15.5%	8.7%	2.4%	1.4%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62.7%	14.1%	13.4%	7.5%	1.8%	0.5%
	중졸	57.2%	15.5%	15.4%	8.3%	2.6%	1.1%
	고졸	57.4%	13.2%	14.1%	10.0%	3.2%	2.2%
	초대졸	44.9%	11.9%	19.0%	15.1%	8.4%	0.6%
	대졸	47.8%	13.9%	16.7%	12.4%	5.8%	3.4%
	대학원졸	38.2%	13.1%	15.4%	15.6%	7.7%	10.0%
배우자유 무	배우자 없음	51.7%	16.7%	15.7%	10.5%	3.9%	1.4%
	배우자 있음	57.6%	13.4%	14.5%	9.4%	3.2%	1.9%



취업자들의 종사자 규모를 살펴보면 20대는 “1-4명”이 25.5%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9.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8.6%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는 “1-4명”이 56.5%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4.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4.0%로 세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자는 “1-4명”이 25%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20.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7.7%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남자는 “1-4명”이 55.3%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4.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4.1%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여자는 “1-4명”이 26%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19.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17.7%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여자는 “1-4명”이 58.1%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5.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3.9%로 세 번째로 많았다.

교육정도 컨버전으로 살펴보면 20대 초졸 이하에서는 “10-29명”이 34.8%로 가장 많았고 “1-4명”이 31.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27.5%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졸이 하에서는 “1-4명”이 62.7%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1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중졸에서는 “1-4명”이 42.7%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21.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9.9%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중졸에서는 “1-4명”이 57.2%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15.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15.4%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고졸에서는 “1-4명”이 38.6%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20.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16%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고졸에서는 “1-4명”이 57.4%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3.2%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초대졸에서는 “10-29명”이 23.2%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21.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4명”이 20.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대졸에서는 “1-4명”이 44.9%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0-99명”이 15.1%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졸에서는 “10-29명”이 20.3%로 가장 많았고 “30-99명”이 19.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00명 이상”이 17.7%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졸에서는 “1-4명”이 47.8%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3.9%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학원졸에서는 “30-99명”이 27.6%로 가장 많았고 “300명 이상”이 24.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17.9%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학원졸에서는 “1-4명”이 38.2%로 가장 많았고 “30-99명”이 15.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15.4%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1-4명”이 25.2%로 가장 많았고, “10-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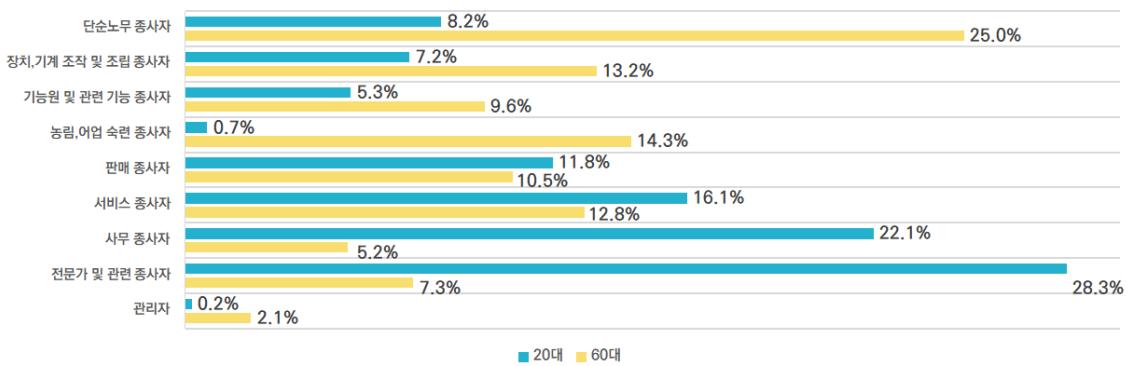
명”이 19.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8.8%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1-4명”이 51.7%로 가장 많았고, “5-9명”이 1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0-29명”이 15.7%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1-4명”이 28.4%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9.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과 “30-99명”이 16.7%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60대는 “1-4명”이 57.6%로 가장 많았고, “10-29명”이 14.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5-9명”이 13.4%로 세 번째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 60대 모두 종사자 규모가 1-4명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20대는 교육정도가 올라갈수록 종사자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60대 성별, 교육정도, 배우자 유무에 상관없이 종사자 규모가 1-4명에 치중된 경향을 보였다.

[표 4.18] 20대 60대별 직업

20대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어 숙련 종사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0.2%	28.3%	22.1%	16.1%	11.8%	0.7%	5.3%	7.2%	8.2%
성별	남자	0.4%	20.1%	16.2%	15.7%	11.9%	1.1%	9.8%	12.4%	12.5%
	여자	0.1%	36.1%	27.9%	16.4%	11.8%	0.3%	1.1%	2.3%	4.0%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0.0%	0.0%	0.0%	0.0%	4.9%	0.0%	42.0%	25.1%	28.0%
	중졸	0.0%	4.4%	6.5%	16.8%	13.3%	3.7%	12.4%	14.0%	29.0%
	고졸	0.1%	11.6%	13.6%	25.3%	16.8%	0.7%	6.3%	10.6%	15.1%
	초대졸	0.1%	32.2%	20.6%	15.8%	10.1%	0.8%	7.9%	8.6%	3.8%
	대졸	0.5%	43.6%	33.7%	6.9%	7.9%	0.5%	2.1%	2.3%	2.5%
	대학원졸	1.7%	82.0%	16.3%	0.0%	0.0%	0.0%	0.0%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0.2%	28.9%	22.4%	16.4%	11.7%	0.6%	4.9%	6.7%	8.1%
	배우자 있음	0.5%	22.5%	19.3%	12.9%	12.8%	1.6%	9.3%	12.1%	9.1%

60대		1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3 사무 종사자	4 서비스 종사자	5 판매 종사자	6 농어 숙련 종사자	7 기능 및 관련 기능 종사자	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9 단순 노무 종사자
전체		2.1%	7.3%	5.2%	12.8%	10.5%	14.3%	9.6%	13.2%	25.0%
성별	남자	3.1%	9.0%	5.5%	3.7%	8.9%	13.8%	13.9%	21.4%	20.6%
	여자	0.7%	4.8%	4.8%	25.5%	12.8%	15.0%	3.4%	1.8%	31.1%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0.0%	0.6%	0.5%	13.5%	6.7%	26.7%	8.9%	7.4%	35.5%
	중졸	0.1%	0.3%	1.9%	16.4%	8.9%	15.0%	12.5%	15.4%	29.6%
	고졸	1.4%	4.3%	7.0%	13.4%	13.9%	9.6%	10.6%	18.7%	21.1%
	초대졸	4.4%	23.4%	9.3%	9.3%	14.1%	8.4%	7.5%	10.3%	13.4%
	대졸	8.9%	25.8%	15.6%	5.8%	12.9%	5.7%	3.5%	7.5%	14.3%
	대학원졸	14.6%	60.1%	8.1%	1.1%	4.1%	4.3%	2.5%	2.2%	2.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0.6%	3.9%	3.6%	22.0%	10.4%	6.5%	7.9%	7.5%	37.7%
	배우자 있음	2.5%	8.1%	5.6%	10.7%	10.6%	16.1%	9.9%	14.6%	22.0%



20대 직업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8.3%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가 22.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16.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25%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14.3%로 두 번째로 많았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3.2%로 세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자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20.1%로 가장 많았고 “사무종사자”가 16.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16.7%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남자는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21.4%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20.6%로 두 번째로 많았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13.9%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여자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36.1%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27.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16.4%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여자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1.1%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25.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15%로 세 번째로 많았다.

교육정도 컨버전으로 살펴보면 20대 초졸 이하에서는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가 42%로 가장 많았고, “단순노무 종사자”가 2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이 25.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졸 이하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5.5%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2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13.5%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중졸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9%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16.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4%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중졸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9.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16.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5.4%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고졸에서는 “서비스 종사자”가 25.3%로 가장 많았고 “판매 종사자”가 16.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15.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고졸에서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1.1%로 가장 많았고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8.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판매 종사자”가 13.9%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초대졸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32.2%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20.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15.8%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대졸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3.4%로 가장 많았고 “판매 종사자”가 1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13.4%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졸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43.6%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33.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판매 종사자”가 7.9%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졸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5.8%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15.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14.3%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학원졸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82%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16.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이 두 직종이 98.3%를 차지했다. 60대 대학원졸에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60.1%로 가장 많았고 “관리자”가 14.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사무종사자”가 8.1%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4%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16.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판매 종사자”가 11.7%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37.7%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2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판매 종사자”가 10.4%로 세 번째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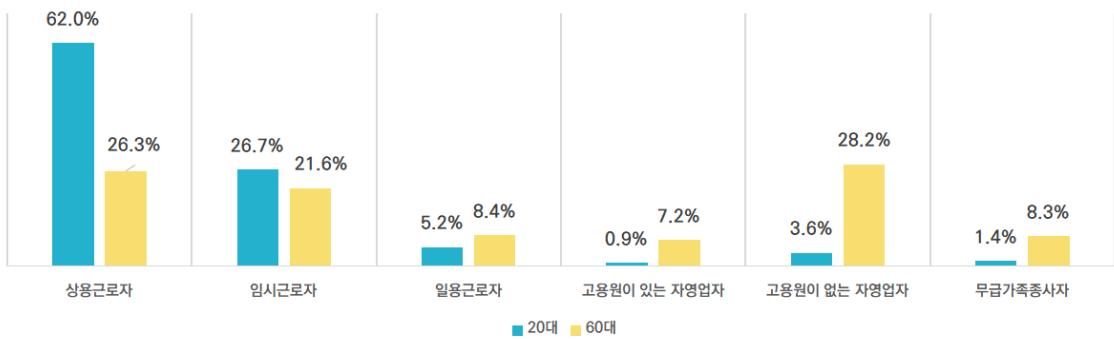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5%로 가장 많았고, “사무 종사자”가 19.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서비스 종사자”가 12.9%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60대는 “단순노무 종사자”가 22%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숙련 종사자”가 16.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가 14.6%로 세 번째로 많았다.

[표 4.19] 20대 60대별 종사상 지위

		20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62.0%	26.7%	5.2%	0.9%	3.6%	1.4%
성별	남자	59.6%	27.2%	6.1%	1.5%	3.8%	1.8%
	여자	64.3%	26.3%	4.4%	0.4%	3.5%	1.0%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25.1%	40.8%	34.1%	0.0%	0.0%	0.0%
	중졸	34.8%	41.2%	15.0%	0.0%	4.6%	4.4%
	고졸	41.6%	39.8%	10.3%	1.4%	4.9%	2.0%
	초대졸	73.7%	19.6%	1.5%	0.8%	3.0%	1.4%
	대졸	77.9%	16.5%	1.7%	0.7%	2.6%	0.7%
	대학원졸	71.6%	23.5%	0.0%	0.0%	4.9%	0.0%
배우자유 무	배우자 없음	62.0%	27.3%	5.2%	0.8%	3.4%	1.2%
	배우자 있음	62.0%	21.2%	5.8%	2.0%	5.8%	3.3%

		60대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전체		26.3%	21.6%	8.4%	7.2%	28.2%	8.3%
성별	남자	29.5%	14.6%	8.5%	9.4%	36.7%	1.3%
	여자	21.8%	31.6%	8.1%	4.0%	16.2%	18.2%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16.8%	23.6%	12.6%	3.3%	28.4%	15.3%
	중졸	23.1%	23.2%	11.4%	5.3%	28.0%	9.1%
	고졸	25.5%	22.2%	6.3%	7.9%	32.4%	5.8%
	초대졸	38.3%	17.6%	4.4%	8.8%	26.9%	4.0%
	대졸	44.4%	15.3%	2.7%	15.3%	19.4%	2.9%
	대학원졸	55.3%	14.2%	0.9%	13.9%	14.1%	1.6%
배우자유 무	배우자 없음	22.6%	32.3%	14.3%	5.9%	24.2%	0.8%
	배우자 있음	27.2%	19.1%	7.0%	7.5%	29.1%	10.1%



취업자들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20대는 “상용근로자”가 62%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가 5.2%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8.2%로 가장 많았고 “일용근로자”가 26.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시근로자”가 21.6%로 세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자는 “상용근로자”가 59.6%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7.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가 6.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남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6.7%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29.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시근로자”가 14.6%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여자는 “상용근로자”가 64.3%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6.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가 4.4%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여자는 “임시근로자”가 31.6%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21.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무급가족종사자”가 18.2%로 세 번째로 많았다.

교육정도 컨버젼으로 살펴보면 20대 초졸이하에서는 “임시근로자”가 40.8%로 가장 많았고 “일용근로자”가 34.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용근로자”가 25.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졸이하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8.4%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3.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용근로자”가 16.8%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중졸에서는 “임시근로자”가 41.2%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34.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가 15%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중졸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8%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3.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용근로자”가 23.1%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고졸에서는 “상용근로자”가 41.6%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39.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가 10.3%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고졸에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2.4%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25.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시근로자”가 22.2%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초대학에서는 “상용근로자”가 73.7%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19.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대학에서는 “상용근로자”가 38.3%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6.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시근로자”가 17.6%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졸에서는 “상용근로자”가 77.9%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16.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6%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졸에서는 “상용근로자”가 44.4%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9.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시

근로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3%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학원졸에서는 “상용근로자”가 71.6%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3.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9%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학원졸에서는 “임시근로자”가 14.2%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14.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4.1%로 세 번째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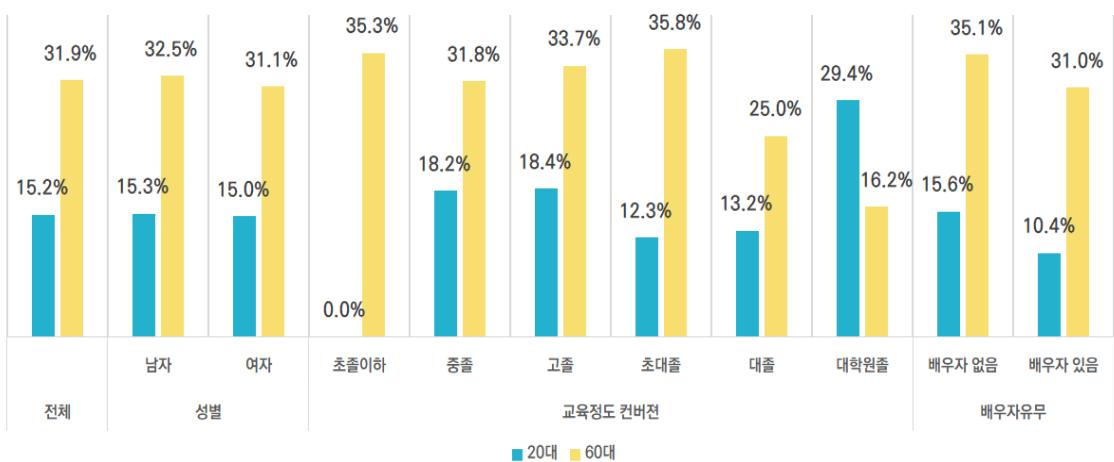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상용근로자”가 62%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7.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가 5.2%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임시근로자”가 32.3%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4.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상용근로자”가 22.6%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상용근로자”가 62%로 가장 많았고, “임시근로자”가 21.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용근로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8%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60대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29.1%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27.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시근로자”가 19.1%로 세 번째로 많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대는 상용근로자가 62%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60대는 20대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다.

[표 4.20] 20대 60대별 고용계약 여부

		20대		60대	
		정했음	정하지 않았음	정했음	정하지 않았음
전체		15.2%	84.8%	31.9%	68.1%
성별	남자	15.3%	84.7%	32.5%	67.5%
	여자	15.0%	85.0%	31.1%	68.9%
교육정도 컨버전	초졸이하	0.0%	100.0%	35.3%	64.7%
	중졸	18.2%	81.8%	31.8%	68.2%
	고졸	18.4%	81.6%	33.7%	66.3%
	초대졸	12.3%	87.7%	35.8%	64.2%
	대졸	13.2%	86.8%	25.0%	75.0%
	대학원졸	29.4%	70.6%	16.2%	83.8%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5.6%	84.4%	35.1%	64.9%
	배우자 있음	10.4%	89.6%	31.0%	69.0%



20대와 60대의 고용계약 여부를 확인해보면 20대는 “정했음”이 15.2%, “정하지않았음”이 84.8%로 나타났고, 60대는 “정했음”이 31.9%, “정하지않았음”이 68.1%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은 “정했음”이 15.3%, “없었음”이 84.7%로 나타났고 60대 남성은 “정했음”이 32.5%, “정하지않았음”이 67.5%로 나타났다. 20대 여성은 “정했음”이

15%, “없었음”이 85%로 나타났고 60대 여성은 “정했음”이 31.1%, “정하지않았음”이 68.9%로 나타났다.

이를 교육정도 컨버젼으로 살펴보면 20대 초졸이하는 “정했음”이 0%, “정하지않았음”이 100%로 나타났고 60대 초졸이하는 “정했음”이 35.3%, “정하지않았음”이 64.7%로 나타났다.

20대 중졸은 “정했음”이 18.2%, “정하지않았음”이 81.8%로 나타났고 60대 중졸은 “정했음”이 31.8%, “정하지않았음”이 68.2%로 나타났다.

20대 고졸은 “정했음”이 18.4%, “정하지않았음”이 81.6%로 나타났고 60대 고졸은 “정했음”이 33.7%, “정하지않았음”이 66.3%로 나타났다.

20대 초대졸은 “정했음”이 12.3%, “정하지않았음”이 87.7%로 나타났고 60대 초대졸은 “정했음”이 35.8%, “정하지않았음”이 64.2%로 나타났다.

20대 대졸은 “정했음”이 13.2%, “정하지않았음”이 86.8%로 나타났고 60대 초대졸은 “정했음”이 25%, “정하지않았음”이 75%로 나타났다.

20대 대학원졸은 “정했음”이 29.4%, “정하지않았음”이 70.6%로 나타났고 60대 초대졸은 “정했음”이 16.2%, “정하지않았음”이 83.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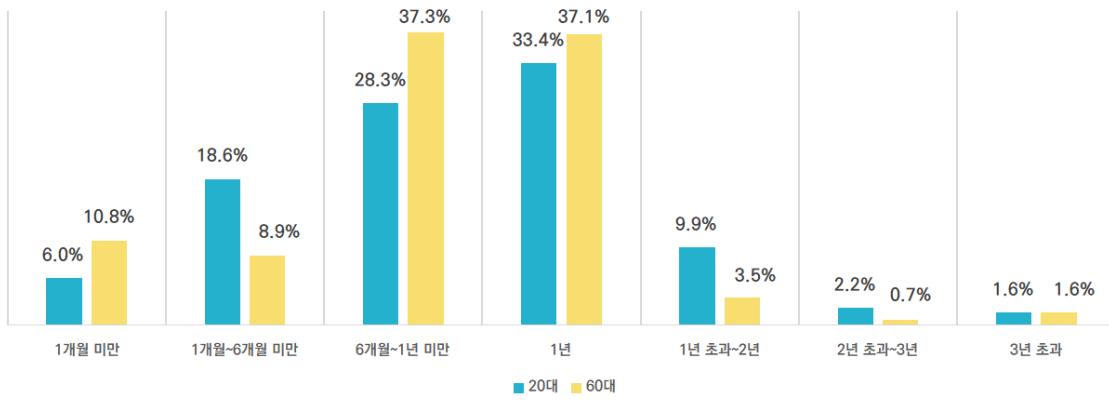
이를 배우자유무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정했음”이 15.6%, “정하지않았음”이 84.4%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정했음“이 35.1%, ”정하지않았음“이 64.9%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정했음”이 10.4%, “정하지않았음”이 89.6%로 나타났으며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정했음“이 31%, ”정하지않았음“이 69%로 나타났다.

[표 4.21] 20대 60대별 고용계약 기간

		20대						
		1개월 미만	1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1년 초과~2년	2년 초과~3년	3년 초과
전체		6.0%	18.6%	28.3%	33.4%	9.9%	2.2%	1.6%
성별	남자	8.5%	17.8%	28.5%	29.6%	9.7%	3.3%	2.4%
	여자	3.6%	19.3%	28.0%	37.0%	10.2%	1.2%	0.7%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0.0%	0.0%	0.0%	0.0%	0.0%	0.0%	0.0%
	중졸	13.1%	6.8%	51.0%	7.8%	21.2%	0.0%	0.0%
	고졸	10.9%	22.9%	32.9%	22.5%	5.5%	2.4%	2.9%
	초대졸	1.6%	10.7%	23.7%	47.8%	15.6%	0.5%	0.0%
	대졸	1.4%	19.5%	23.4%	39.8%	11.8%	3.4%	0.8%
	대학원졸	0.0%	0.0%	19.7%	66.4%	13.9%	0.0%	0.0%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6.0%	19.4%	28.2%	32.9%	9.9%	2.0%	1.5%
	배우자 있음	5.9%	6.4%	28.9%	41.3%	10.5%	5.0%	2.0%

		60대						
		1개월 미만	1개월~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	1년 초과~2년	2년 초과~3년	3년 초과
전체		10.8%	8.9%	37.3%	37.1%	3.5%	0.7%	1.6%
성별	남자	12.9%	8.2%	31.8%	40.5%	3.5%	1.0%	2.0%
	여자	8.1%	9.8%	44.2%	32.8%	3.5%	0.3%	1.2%
교육 정도 컨버전	초졸 이하	12.6%	12.1%	42.1%	30.0%	2.7%	0.4%	0.2%
	중졸	16.1%	9.7%	38.2%	30.4%	5.0%	0.4%	0.2%
	고졸	8.9%	8.4%	36.4%	42.5%	1.5%	0.4%	1.9%
	초대졸	0.0%	2.6%	32.7%	50.4%	3.9%	0.0%	10.4%
	대졸	6.0%	2.1%	28.6%	50.0%	5.8%	3.9%	3.7%
	대학원졸	0.0%	15.0%	34.4%	26.7%	17.0%	2.3%	4.6%
배우자 유무	배우자 없음	11.1%	10.7%	46.4%	26.6%	3.8%	0.4%	1.0%
	배우자 있음	10.7%	8.4%	34.2%	40.7%	3.4%	0.9%	1.9%



20대의 고용계약기간은 “1년”이 33.4%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3%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 6개월 미만”이 18.6%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는 “6개월 ~ 1년 미만”이 37.3%로 가장 많았고 “1년”이 37.1%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0.8%로 세 번째로 많았다.

성별로 보면 20대 남자는 “1년”이 29.6%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5%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 6개월 미만”이 17.8%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남자는 “1년”이 40.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31.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2.9%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여자는 “1년”이 3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 6개월 미만”이 19.3%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여자는 “6개월 ~ 1년 미만”이 44.2%로 가장 많았고 “1년”이 32.8%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 6개월 미만”이 9.8%로 세 번째로 많았다.

교육정도 컨버젼으로 살펴보면 60대 초졸이하에서는 “6개월 ~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고, “1년”이 30%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2.6%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중졸에서는 “6개월 ~ 1년 미만”이 51%로 가장 많았고, “1년 초과 ~ 2년”이 21.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3.1%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중졸에서는 “6개월 ~ 1년 미만”이 38.2%로 가장 많았고, “1년”이 30.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6.1%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고졸에서는 “6개월 ~ 1년 미만”이 32.9%로 가장 많았고 “1개월 ~ 6개월 미만”이 22.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년”이 22.5%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고졸에서는 “1년”이 42.5%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36.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8.9%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초대졸에서는 “1년”이 47.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3.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년 초과 ~ 2년”이 15.6%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초대졸에서는 “1년”이 50.4%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32.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3년 초과”가 10.4%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졸에서는 “1년”이 39.8%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3.4%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 6개월 미만”이 19.5%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졸에서는 “1년”이

50%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6%로 세 번째로 많았다.

20대 대학원졸에서는 “1년”이 66.4%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개월 미만”이 19.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년 초과 ~ 2년”이 13.9%로 세 번째로 많았다. 60대 대학원졸에서는 “6개월 ~ 1년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6.7%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년 초과 ~ 2년”이 17%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 유무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없는 20대는 “1년”이 32.9%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 6개월 미만”이 19.4%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없는 60대는 “6개월 ~ 1년 미만”이 46.4%로 가장 많았고, “1년”이 26.6%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1.1%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20대는 “1년”이 41.3%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28.9%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년 초과 ~ 2년”이 10.5%로 세 번째로 많았다.

배우자가 있는 60대는 “1년”이 40.7%로 가장 많았고, “6개월 ~ 1년 미만”이 34.2%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1개월 미만”이 10.7%로 세 번째로 많았다.

## V. 결론

### · 결과 요약

문항의 분석에 대하여 성별, 교육 정도, 배우자 유무, 20,60대에 따른 집단의 차이 또는  
분포의 차이에 대한 존재 유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5.1] 결과 요약표

	Q.10 주 평균 근로 시간	Q.11 평소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Q.14 추가 근로 희망 여부	Q.15 추가 근로 가능 성여 부	Q.16 추가 구직 활동 여부	Q.18 종사자 규모	Q.19 직업	Q.20 종사 자직 위	Q.22 고용 계약 여부	Q. 22-1 고용 계약 기간
성별	O	O	O	X	X	X	O	O	X	O
교육 정도 컨버 전	O	O	O	X	X	O	O	O	O	O
배우 자 유무	O	O	O	X	X	O	O	O	O	O
20,60 대	X	O	O	X	O	O	O	O	O	O

전반적으로 20,60대에 따라 취업과 관련된 문항들은 대부분 유의한 분포 차이를 보였다. 총 10개의 취업과 관련된 문항 중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추가 취업 가능성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분포의 차이가 나타났다.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에서 20대와 60대 모두 “정규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이유가 대부분이었지만, 20대는 “통학” 부분이 60대보다 특히 많게 나타났고, 60대는 20대보다 “평소 일거리가 없어서”가 많이 나타났다.

추가 취업 유무에서 20대와 60대 대부분 현재 일자리에 만족한다고 나타났지만, 그 외에 추가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20대가 60대보다 더 많았고, 실제 구직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20대가 60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60대는 직장을 옮기지 않고 근로 시간만 늘리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20대보다 많게 나타났다.

직업 및 종사자 지위에 대해서는 20대가 60대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와 사무 종사자가 많았고, 60대는 20대보다 단순 노무 종사자와 농림, 어업 종사자가 많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상용근로자가 62%로 대부분이었고, 60대는 20대보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많게 나타났다. 또한, 종사상 규모에 대해 자영업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가 많은 60대가 “1 ~ 4명”이 56.5%로 20대보다 많게 나타났다. 20대는 종사상 규모가 100명 이상인 곳에서 60대보다 많게 나타났다.

고용계약 여부에서 60대가 20대보다 계약 기간을 정한 사람이 더 많게 나타났고, 고용계약 기간에서는 60대가 20대보다 1개월 미만부터 1년까지의 기간이 더 많게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1년 초과 기간에 대해서 60대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20대와 60대에 따라 취업률은 60대가 2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주당 평균 근로시간에 대해서 차이가 없었지만, 60대에서 단순 노무 종사자나 자영업자, 농업, 어업 종사자와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불안정한 취업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평소 주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에서 60대의 “평소 일자리가 없어서”가 20대보다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60대의 취업 형태가 불안정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20대는 60대보다 취업률은 낮지만 상용 근로자가 많이 나타났으며 고용계약 기간이 없는 사람이 60대보다 많게 나타남으로 좀 더 안정적인 취업 형태를 가지는 것이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률을 높이는 것 외에 취업자들이 좀 더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과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 취업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